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 3월

지 / 역 / 사 / 회 / 특 / 약 / 소 / 인 / 합 /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주) 100-891 ☎ 02-555-8305-6 FAX : 555-8306 ID : GTYDX(선2인)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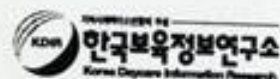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메뉴입니다.



서울 중구 옥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 3월

<호81 15쪽>

<5-1지표>

지 / 역 / 사 / 회 / 특 / 아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75-8505~6 FAX : 275-8506 ID :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7년 3월호

<통권 48호>



<표지사진>

우리 결혼했다!!!

인천 햇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준비한 결혼 놀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결혼을
생각해보게 했다.
결혼이란 형식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사진 / 인천, 햇살 어린이집)

일하며 생각하며 / 4

새봄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정 회연

기획 특집 / 6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 權 正嗣

저상공연 / 10

보육비용의 사회화와 조세진원제도 백 선희

보육정책 / 21

'97 보육사업지침에 대한 본회의 의견
정책개발위원회

일본연습기 / 25

일본 (교토, 오사카) 보육원을 찾아서 김 혜원

육아정보 / 28

활용도에 따라 변하는 TV의 가치
-영역별, 나이별 프로그램 선택- 이 혜영

고사의 의견 / 30

우리의 식생활과 숙변의 관계에 대한생각
이 애용

세상읽기 / 34

한 사람의 열결음보다 열사람이 한결음을!
위 양자

짜임새

연장소식 - 하나 / 36

고 정미 본뜬이반 결혼식(햇살어린이집)

연장소식 - 둘 / 39

김 옥희 전래놀이를 자모회에서

연장소식 - 셋 / 41

김 경아 '연나래 별' 마이산을 다녀와서

연장소식 - 넷 / 43

최 선희 '명별기 소망'
바다와 철길이 만나는 곳, 정동진!

탁아소 별곡 / 45

다우리 어린이집

좋은 그림책 소개 / 46

김 서란 나무의 노래

우리들의 목소리 / 48

주 연옥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

육아일기 / 51

나 은미 유빈아빠의 아이 돌보기

소식과 소식 / 52

보육계 풍향 / 55

편집부에서 / 56

1997년 3월호 (통권 48호)
첫발행 1992. 5. 25 / 편집부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 편집인 남미영 / 목은이 박정애, 정순
옥, 강예란 / 편집날 1997년 3월 3일

일하며 생각하며

새 봄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정 회연 (한국보육정보 연구소 소장)

세상이 모두를 속여도 한가지 못 속이는게 있다면 바로 계절의 변화인 듯 싶다.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겨울의 끝에 서서 새봄을 기다린다. 나이가 들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절절해졌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각오, 그런 것의 다른 표현일까? 내게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은 아니리라. 지탁연 식구들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번 겨울은 우리에게 여지껏 해온 일들을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한 고비였다. 그리고 그 정리와 평가를 토대로 짚개는 올 한해와 길게는 앞으로 몇년을 계획하고 전망해 보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한편으로는 아직 해보지 않은 다시 모든게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뒤섞여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처음 우리가 '보육'이 아니라 '탁아'(안다, 이 단어가 어째서 지금 쓰여지지 않는 지, 그리고 합의하고 있는 바의 부정적 측면도 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이 단어는 상당히 정경고(?) 향수 어린 특별한 감정을 불러 일으킴 또한 사실이다)를 시작하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아무 것도 없었다. 단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척박함 속에서 하나 하나 토대를 일구어내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많은 변화, 발전을 이루어 내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1997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지탁연은 한국보육교사회 준비위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간 지역별로 진행되어오던 교사조직을 위한 밑거름 작업이 이제 전지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틀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분명 보육교사회

는 지탁연과 성격상 다른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의 보육현실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지탁연의 정신이다. 설사 활동내용과 기조가 일정정도 변화한다 하여도 새로운 사업과 활동을 추진시키고 발전시킬 힘은 바로 지탁연의 지난 10년의 활동성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길은 처음 우리가 '탁아'를 시작했을 때와 비슷하게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잘 헤쳐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난관들도 분명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도달해야 할 목표와 열심히 땀 흘린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탁연이 새로운 조직으로 나아감에 연구소도 새로운 각오와 과제가 요구되는 물론이다. 그간 지탁연이 담보해왔던 정책연구 및 생산 기능,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연구소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연구소는 나름대로 각종 보육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탁연이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듯이 연구소는 크게는 전체 보육현실의 발전과 작게는 보육교사회가 자리매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 움트는 봄, 우리들 역시 보육교사회라는 새싹을 틔우려 하고 있다. 봄이 지나면 곧 녹음이 무성한 여름이 올 것이고 또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오리다. 그 계절을 위해 다 시금 땅을 흘려야 할 때인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명제이다. 지탁연

인권보육 커리큘럼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한 제언

堀 正嗣 - 스즈키 쇼조(일본보육정보센터 부소장)

I. 전후 50년에 걸친
[보육]문제의 변천

1. 전후 50년에 걸친 아이들의 상황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대량의 인명이 살상되었다. 그리고 그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폭후유증으로 시달려 왔다.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으로 전쟁은 끝났다. 그 때부터 아이들의 전후 50년이 시작되었다.

① 기아와 빈곤 그리고 아이들

전쟁은 많은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일부 사람들은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얻었지만 대다수 국민은 기아에 허덕였고, 전쟁 전후의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신체통계상으로 보면 당시 17세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보다도 신장 17cm, 체중 2kg 정도가 작았다. 아이들이 점령군의 식량창고에 몰래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쳐먹으려다 사살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② 신교육 제도(6·3·3·4)의 수립과 유아원·보육원 의원제도의 출범

교육은 아이들의 권리이다. (의무만으로 여겨졌던 戰前의 교육이 크게 달라졌다.)

戰前의 탁아소는 후생성의 관할을 받은 바, 아동복지시설로서 보육소는 아니었다. 유아원은 문부성의 관할을 받았고, 학교와 같은 위치에 있

었다. 그로 부터 지금까지 취학전 아이들은 유아원·보육원이라는 의원제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민당의 방침은 유아원의 제도를 지지하는 쪽으로, 사회당은 보육소의 정비에 힘을 쏟는 쪽으로 기울어, 50년 체제의 관계가 유아원·보육소라는 2원제도를 일원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육 일원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③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정책과 유아원·보육원의 증설

땅이 쏠려내린 것과 같은 인구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농촌 인구의 신산업도시와 대도시로의 유입과 함께 제2차, 3차 산업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64년에 문부성은 유아원 증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5년에 걸쳐 120인 정원, 4학급의 유아원을 3,700개소 증설하고 기존의 유아원에 약 1000학급을 증설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후생성은 3년 후인 1967년에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보육소 4000개소를 신설하고 조치아동수를 120만명으로 늘린다(다만 조치아동의 40%를 사립에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0세부터 3세아를 조치는 문제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았다.

1965년 동화대책심의회의담신에 이어, 1969년에 동화대책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육소가 절실히 필요했던 동화부락 부모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어 동화보육소가 각지에 설치되기 시작

했다. 후생성이 내세운 보육소정비 5개년계획 등에 힘입어 동화보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시간보육] [전원보육] (동화지구의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희망하면 보육소에 조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病兒보육] [완전급식]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소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내었다.

④ 1970년대, 교육의 국가관리강화

신간선의 개통(70)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신간선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 진학을 위한 능력주의와 경쟁의 원리에 지배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낙오당하고] [낙오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1973년부터 이즈메가 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⑤ 1980년대, 교내 폭력, 가정내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1년에 교내폭력이 1558건, 가정폭력이 1025건으로 보고되었다.

⑥ 1990년대, 이지메에 의한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고 함께 특수출생률이 1.50이 되었다.

⑦ 연립정권시대가 시작되고 50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정권은 자민당과 사회당, 선구당 3당연립으로 이행하였다.

함계특수출생률의 저하는 고령자인구증가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후생성에서는 고령자 복지를 위한 골드플랜, 少子化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통합계획] (엔젤플랜)을 내고, 그 막후작업으로 후생성·자치성·대장성 3성이 합의하여 [긴급보육대책 5년사업]을 발표하였다.

후생성은 현재의 보육제도 속에 자유계약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정부부담을 경감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후생성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보육문제검토회]를 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치노대표인 福山眞劫, NHK의 小宮山洋子 등의 반대, 自治省의 반대, 학자·연구자·문화관계자의 반대

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어 自治省와 연합도 가세한 전국민 반대서명운동 등이 벌어졌고 답신은 이례적으로 兩論併記 되었다.

그 직후에 후생성은 연립정권의 상황도 있어서 [엔젤 플랜]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아이들은 그 시대상황에 휩쓸려 그것이 자신의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사회관계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피형성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각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져, 피해가 아이들에게 크게 미치고 어른들의 책임이 다음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의 책임은 다음세대의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물려줄 의무로서 자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선의 것]이란 전쟁이 없는 세계, 파괴되지 않은 자연, 차별없는 사회이다.

3. 어린이 권리조약의 비준과 국내발효

1989년 국제연합 제4회 총회에서 어린이권리조약이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에 국제조약으로 발효하였다. 그것을 기념하여 9월 29일·30일 양일간, 뉴욕 본부에서 국제어린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109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그 가운데는 73명의 국가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듬해인 1994년 5월 20일에 이를 국내발효하였다.

국제연합은 어린이권리조약 비준국이 다수에 이른 것을 기회로 삼아, 보다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교육10년]을 설정하기로 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그 기한으로 정하였다. 국제연합은 그 행동계획을 명확히하여, 각국에 그 추진방향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따라 일본정부는 1995년 12월 15일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 행동계획을 준비해 가고 있다. 大阪府,

大阪市도 [국제연합인권교육 10년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머지않아 추진본부 설치와 행동계획의 책정이 시·정·촌에까지 이를 것이다.

국제연합본부 행동계획의 골자는 [인권문화]를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이다.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꽤 까다로와 간단히 말할 수 없는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며 거기에는 교육이라든가 보육의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교육 10년을 인권보육 10년이라 생각하고, 보육을 인권을 축으로 하는 제도와 내용으로 새롭게 바꾸어내어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문화로서의 질을 높이는 10년간의 행동을 계획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에 [인권보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제기하는 것도 그를 위한 첫걸음이다.

II. 인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어떠한 보육인가?

1. 인권은 21세기의 키워드

A.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독을 따라 걷고 있는데 물에 빠진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우리는 큰일났다 싶어 뛰어들어 도우려 할 것이다. 그때 그 아이의 생존권은 보장된다.

[이지메]를 당해 자살한 아이들의 수기에는 눈물의 흔적이 여러 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누구에게도 이르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세상에는 전쟁에서 죽어간 아이, 거리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생활을 하며 길거리에서 별의별 불행에 빠져 있는 아이, 대 여섯 살부터 노동을 해서 몸에 탈이나 고생하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 열 너댓 살에 매매춘에 희생되는 아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는 아이, 동등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술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는 차제에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이지메]를 당한다든지, 동교거부나, 중퇴를 당하는 고등학생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번뇌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부락차별,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짓곳은 행동이나 차별발언 등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B. 어린이 권리조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성립, 1994년 5월 22일 우리나라(일본)에서 국내발효되었다.

- ① 1924년 어린이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연맹)
- ② 1959년 국제연합 어린이 권리선언
- ③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 ④ 1989년 국제연합 제 44회 총회에서 어린이 권리조약 채택
- ⑤ 1990년 9월 29, 30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세계어린이 회의 <109개국 대표집합>
- ⑥ 1994년 3월 우리나라 비준완료, 5월 22일 국내발효
- ⑦ 1995년 12월 15일, 국연인권교육의 10년 추진본부설치

C. 어린이는 권리의 주체다.

- ① 어린이와 어른은 대등, 평등하다.
- ② 어린이는 부여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참가,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③ 어린이는 자존감을 중시하도록 길러져야 한다.
- ④ 어린이는 종속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 ⑤ 어린이는 평화(전쟁없는 세계)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
- ⑥ 어린이는 자연(환경파괴 없는)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
- ⑦ 어린이는 「놀이, 여가를 즐기고, 예술적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지닌다.
- ⑧ 어린이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 ⑨ 어린이가 교과서만을 정보의 원천으로 삼도록 해서는 안된다.

D. 어린이를 주체로 한 보육양식을 창조해야만 한다.

① 보육소와 유아원, 여기에 더하여 공립, 민간으로 나뉘어지는 등 현행 보육제도는 제각각이다.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역의 공동성을, 보육일원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

②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의 취지를 인권보육 10년으로, 각지의 추진본부에 제의할 필요가 있다.

③ 「엔젤플랜」, 특히 「보육대책간담5개년계획」의 적극적추진을 계획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자. 풀뿌리운동을 일으키자.

Ⅲ. 「인권커리큘럼」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적귀속특성과 우유적귀속특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의 통일체이다.

백은선사의 화환에 「중생본래 부처이니, 물과 얼음같이 물을 떠나서 얼음이 있을 수 없듯이, 중생을 떠난 부처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J.J. Rousseau는 「자연의 질서 아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니, 그 공통의 천적은 인간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이라는, 이양할 수 없는 권리」를 기본적인권이라 한다.

한편 인간은 偶有적 특성으로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그외의 의견, 국민적,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및 그외의 지위」(어린이권리조약 2조)에 차이가 있다.

종래의 차별은 이 우유적 특성을 근거 또는 이유삼아 어떤 사람을 모멸하거나, 특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는 부락차별, 장애아차별, 재일외국인차별, 여성차별, 소수민족의 차별등이 엄존하고 있다.

자녀양육, 보육, 교육, 사회계발에 총력을 다하여 이와 같은 차별을 극복해가지 않으면 안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커리큘럼이란 무엇인가?

「영유아와 생도, 학생이 학습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내용의 계열을 일컬어 커리큘럼이라고 한다.」 종래의 정의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속박(구속)보육, 「주입교육」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① 6영역 커리큘럼

종래에 유아교육내용으로는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음악리듬, 「회화제작」의 6영역이 있었다. 1989년에는 유아원교육요령 개정에서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이라는 5영역을 「보육자의 목표」로서 변경,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년간 계속되었던 6영역커리큘럼은 아직 현장보육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학교 부서의 교과로 변함없이 「주입」되는 방식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문부성, 후생성)의 규준을 현장에 하달하는 듯플랜식 보육행정의 결과로 경직된 보육이 실시되었다.

② 행사중심 커리큘럼

7월 7일 칠석날이 가까와질 무렵이면 이 행사를 위한 준비로서 절지세공, 칠석가, 벌에 관한 이야기, 건우·직녀의 그림 등으로 한바탕 북새통을 떨며 만든 것을 당일 아이들에게 들려 보낸다.

그 다음에 또 행사가 이어진다. 이와 같이 1년 중, 행사에 따라 보육내용을 짜나가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고 아이들은 매번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③ 즉흥 커리큘럼

그날 그날 날씨가 좋으면 산보를 하고 비가 오면 실내에서 종이인형극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최근 발행된 유유아 교육용 잡지에 나오는 재미있는 보육내용의 해설을 읽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해 본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아이들의 흥미에 주목하는 편

이나 일관성이 없어 「즉흥 커리큘럼」으로 불린다.

④ 놀이 중심 커리큘럼

주입교육의 폐해가 문제시되고 수험경쟁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부성도 개성중시 창조성의 중시라든가, 아이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길러내야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영향도 있어서 1990년의 유아원교육요강과 보육소보육지침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아이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보육의 중시라는 사고방식이 일반화되고 놀이 중심의 보육이 전개되어 간다.

보육자는 될 수 있는 한 뒷편에 물러서서 놀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보육소보육지침에는 보육목표 가운데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표현이 삽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원교육요강에는 이 목표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지침에도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을 어떻게 길러내는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⑤ 커리큘럼 무용론

대저 아이를 기르는데 커리큘럼이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과거의 커리큘럼이 국가규준을 top-down 방식으로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왔던 폐해를 비판하는 의견으로서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성인사회가 차별사회인 까닭에 아이들이 공기를 마시듯이 차별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 보육자가 차별을 받는 부락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락차별에 반대하는 신념을 지닌 아이들을 길러낼 수 없다. 보육자가 차별의 현실로 부터 학습하고 자기 내부에 어릴 적 부터 심어진 편견을 없애는 작업, 즉 「자기개혁」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즉 다음세대의 아이들에게 편견과 차별감정을 주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의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는가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커

리큘럼이 소용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린이는 0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들을 말한다.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키워내는 데에는 어느 연령이 되면 적어도 이러한 것은 아이들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차분히 키워가기 위한 통찰력 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여, 이 연령대에는 적어도 이러한 것은 체득시키는 편이 좋다는 「보육자」들의 합의, 그것이 유아원교육요강이고 보육소보육지침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문부성과 후생성에서 나오는 「요강」과 「지침」에는 어린이권리조약과 국연인권교육 10년 속에 제시된 어린이의 권리로서 교육목표는 소홀히 되고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⑥ 어린이를 주체로 한 커리큘럼은 누가 준비하면 좋을까?

a) 유아원·보육소의 보육자집단

각원마다 민주적인 보육자집단이 커리큘럼에 책임을 진다.

b) 보육자집단은 부모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부모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 연구자의 참가를 요청한다.

d) 지역어린이들의 「보육」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에 힘쓴다.

e) 커리큘럼에 관한 견해를 현대 모아, 지방의 연구회에 제안하여 널리 의견을 구한다.

f) 전국보육집회와 같은 장에서 발표하고 검토하여 개선할만한 것을 개선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가운데 지역의 어린이들이 생기넘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원 독자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g) 이는 「생각은 폭넓게 하되, 실천은 바로 이곳부터」와 같은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인권보육커리큘럼」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를 신습니다.

지상강연

보육비용의 사회화와 조세지원제도

백 선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편집자주 : 아래의 글은 백선희선생님이 작년 11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추계학술대회 때 '6세이하 아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불평등성에 관한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네 아이들」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완·요약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전하고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 수행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I. 머릿말

II. 보육비용의 사회화와 조세지원제도

III. 조세지원제도의 급여 효과 분석

IV. 맺음말 : 보육비 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I. 머릿말

지난해 추계 영유아보육학회 때 주제 발표와는 상관없이 두가지의 쟁점이 부각되었었다. 한가지는 교육개혁위원회의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안)'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가지는 '유치원 교육비 공제'에 관한 것이다. 종합토론장에서의 흥분된 발언, 정부 관료들에게 쏟아지는 항의 속에는 아동 보육에 대한 애정과 아동보육 관계자들의 소외의식이 함께 묻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두가지 쟁점이 모두 유치원 대 보육시설이라는 대립구조로 비추어져 현재의 유치원아들은 교육비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미래의 유치원아들은 무상교육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보육시설의 영유아들은 현재도 미래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대적 박탈의식을 자아내는 것들이었다. 흥분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흥분만으로 유치원도 혜택을 주니 보육시설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료 공제를 유치원 교육비 공제와 동일 한도로 실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육 관계자들은 유치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 할 것인가?

아동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책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비 공제든 보육료 공제든 그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아동 보육 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그 특성상 최선의 방법은 결코 될 수 없다. 아동 보육에 관한 조세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조세지원제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동에 관한 조세지원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II. 보육비용의 사회화와 조세지원제도

1.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출산은 부부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사적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가? 노동력 재생산이나 아동권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노동력 재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아동 보육은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노동을 임노동화하고 기혼여성을 가정에서 직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종래 개별 가정에서 사적으로 해결해 왔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 불가결한 가사, 육아노동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 이면에는 여성의 역할이 본래 가정에 있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기초한 원칙이 관철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육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으로서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孝橋正一, 1989: 115-116). 이처럼 여성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육아 및 가사를 맡아야 하는 필요성이 서로 상충되어 나타남에 따라 여성 역할의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육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아동을 미래의 노동력, 차세대의 담당자라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성인과 대등한 인격체로 간주하는 관념이 나타나게 된다(井垣章二, 1985:35).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하고 투쟁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분야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인 아동 관련 조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924년의 '제네바선언',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 등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장영인/1996:38-39)

아동양육이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해도 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이 사회적으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이 아동보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은 바로 아동의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는 아동보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을 때,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나 조세지원제도 등 일반 소득계층의 아동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급여를 통해 그 책임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2. 보육비용의 사회화와 조세지원제도

보육비용의 사회화는 아동보육에 대해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보육비용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한 개념으로 '보육비용을 보호자, 국가, 기업 등의 민간부문에서 함께 분담하는 것(백선희, 1996)'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육비용의 사회화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가 보육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는 대개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개별 가족에게 관련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가족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여러 복지국가에서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조세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수의 확충 및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총 보육비용

중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크기를 증대시키므로 시설 지원금이 클수록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먼저, 아동수당은 현재 세계 8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아동양육비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일반 아동들에게 조세 또는 사회보험기금에서 출연한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995), 이것은 급여대상의 보편성과 재원의 공공성을 확보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육비용의 사회화를 가장 잘 실현한 제도이다¹⁾.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보편주의적 급여는 조세지원제도²⁾에 의한 급여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의 많은 국가가 소득공제³⁾ 또는 세액공제⁴⁾라는 방법을 통해 아동의 보육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3세미만 아동의 보육료 5) 중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독일은 보육을 목적으로 고용한 가정부 임금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프랑스는 6세미만 아동의 보육료의 25% 및 가정탁아 이용시 교사의 사회보험료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동국대부설사회조사연구소, 1992).

표 1을 보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동시에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지만 스웨덴과 영국은 예외이다. 왜 이 두나라는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일까? 스웨덴은 일반 공공제정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보육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부담률은 가정보육의 경우 15%, 시설보육의 경우 10%에 불과하다. 영국도 이전에 조세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시키면서 아동수당의 급여수준을 그만큼 높였다⁶⁾. 즉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제도를 통합시킨 것이다. 또 지금은 양제도가 공존하는 국가 중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이나 보편적 사회급여를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의 보편적 사회급여를 실시한 경험으로 갖고 있다.

1) 물론 아동수당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연령이 각 나라마다 17-18세까지 적용되는 등 적용범위가 넓지만, 아동양육비의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결국 영유아에게는 보육비용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우리가 보통 조세감면제도(광의로는 조세지출)라고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의미는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3) 소득공제(tax allowance)는 모든 과세 가능한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 필요경비적 공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써 세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연간 2천만원이고 세율이 1천만원까지 10%, 4천만원까지 20%라고 가정하자. 소득공제가 없다면 2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소득공제제도가 있어 1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급여액 2천만원에서 공제액 1천만원을 뺀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의 세율은 10%로 100만원만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절세(tax savings) 효과는 300만원이 된다.

4) 세액공제 tax credit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제함으로써 세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법이다. 소득공제가 과세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공제라면 세액공제는 과세한 이후의 산출세액에 대한 공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4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00만원에서 40만원을 제외한 60만원만 납세하면 된다. 40만원의 조세감감 효과가 발생한다.

5)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한정부 사용하였으며, 보육비용은 보육료를 포함한 아동 보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

6) 1972년 영국 보수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세제도를 통합하자는 급진적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소득세 credit제도이다. 조세제도 자체로는 아이들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당시 사회급여는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수혜층을 늘리고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다. 이후 면세점 이하의 가난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반성과 함께 폐지시키고 아동수당을 전 아동에게 확대시키면서 강화시켰다(이해영 외, 1988:102-7; 김상균, 1986:70).

여러 국가의 경험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아동의 보육비용을 사회화하는데 아동수당에 비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아동수당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보육비용의 사회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1> OECD 주요국의 아동에 관한 조세지원정책 및 아동수당제도 현황-1993년

국 가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보편적 아동수당(가족수당)
벨기에	×	○	○
노르웨이	×	○	○
핀란드	○	×	○
스웨덴	×	×	○
오스트리아	×	○	○
영국	×	×	○
프랑스	○	×	○
독일	○	×	○
이탈리아	×	○	○
뉴질랜드	×	○	○
미국	○	×	×
일본	○	×	○

자료 : OECD(1994), *The Tax/Benefit Position of Production Workers-Annual Report 1990-1993*

3. 조세지원제도의 의미와 특징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보육비용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조세지원제도는 사회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티트머스(Titmuss)는 그의 논문 [복지의 사회적 분화](1958)에서 재정복지(fiscal welfare)를 강조하면서 조세지원제도(tax relief)는 사회복지와 유사한 목적, 유사한 효과를 갖고며 단지 방법만이 다를 뿐이라고 하면서 재정복지와 사회복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Titmuss가 왜 재정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다음의 글로 대신할 수 있다.

'가족수당, 퇴직연금 등 직접적 현금급여는 특히 의존 집단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금급여는 중앙정부 재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지출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세감면은 유사한 급여를 제공하고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도 사회서비스 지출로 취급되지 않는다. 행정절차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에게 발생하는 절세(tax savings)는 효과면에서 보면 이전급여이다. 목적과 개인구매력에 대한 효과면에서 사회서비스와 조세감면은 의존집단에 대한 집합적 공급이라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다(Titmuss, 1976:44-5).'

Pond는 재정복지와 사회정책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재정복지'는 조

7) Titmuss는 복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복지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와 각종 현금급여에 관한 것이며, 재정복지는 조세체계에 있어서 조세감면(tax reliefs)과 면세(exemption) 등에 관한 것이고 직업복지(occupation welfare)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재정복지는 조세지원제도(또는 조세지출)와 그 의미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자가 개념적 차원의 용어라면 후자는 현실 제도적 차원의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세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수단이다. 수혜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보조금이 지불되든, 조세감면을 통해 지불되든 효과는 동일하다. 더욱이 국가 입장에서도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감면 역시 정부지출이라는 데서 똑같은 효과가 있다. 조세감면은 공공복지의 한 형태이며, 또한 공공지출의 한 형태이다(Pond, 1980:50).⁸⁾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사회복지로서의 '아동수당'과 재정복지로서의 아동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아동보육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아동수당 액수만큼 또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절세효과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며, 단지 아동수당은 일반재정에서 직접 지급하며, 조세지원제도는 일반 재정을 거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급한다는 방법만이 서로 다르다⁹⁾.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가 사회복지급여인 아동수당과 유사한 목적,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서 사회복지급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어 만약 양 제도가 존재한다면 개별 가족이 받는 급여수준은 하나의 제도가 있을 때보다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 제도는 제도적 바탕을 달리하고 그 구체적인 효과에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제도가 없을 당시에는 조세지원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력도 상당하였지만, 직접 급여인 아동수당의 도입 이후에는 아동수당제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세지원제도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영국이나 스웨덴 같이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이 높을시에는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아동수당을 없애고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조세지원제도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다른 많은 조세정책 중 한가지로¹⁰⁾, 조세지원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어쩌면 과세시 누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나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정책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조세정책에서 누진적 과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분배정책이라면 조세지원정책은 빈곤, 가족 부양, 교육 등 생활상의 욕구를 소득공제, 면세 등의 형태로 반영함으로써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크기에 따른 분배가 아닌 욕구에 따른 재분배 정책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조세지원제도는 수혜자 개별적으로는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수평적 평등 즉,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간의 수평적 재분배에 관심을 갖고 시행된다.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이다. 조세지원정책이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를 달성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과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한 수직적 재분배의 역진성이 생긴다는 것인데 조세지원제도는 과세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이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과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조세지원제도로 인한 혜택도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점이다(Lister, 1980:149). '역진적 보조'라고도 하는 조세지원제도

8) 일반 재정은 조세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납세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감면한 세액은 일반 재정에 포착되지 않는다. 일반 재정에서 지출되지 않고 과세 단계에서 지출된다고 해서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한다.

9)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Smeeding, 1990; 김태성, 1996:92-123). 첫째 조세수입의 크기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이 클수록 좋다. 둘째, 조세부담의 문제로 과세에 대한 누진성의 정도이다. 셋째, 과세의 형평성 확보로 탈세를 줄이고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넷째의 방법이 조세지원제도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모든 조세지원제도가 역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하기 전에 공제함으로써 그 지원효과도 누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과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원효과가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 또 미국은 일정소득이상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¹⁰⁾.

따라서 모든 조세지원제도가 역진적이라는 기존의 논리는 부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냐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성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지원제도가 단순히 소득계층간 재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욕구에 따른 자원재분배를 시도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조세지원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III. 조세지원제도의 급변 효과 분석

1. 조세지원제도의 지원효과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아동보육비에 대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가장 유사한 두가지 공제를 선택해서 급변 효과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만약 올해부터 보육료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면 그 효과와 특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예측해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대별되며, 소득공제는 다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그중 1996년도 현재 6세이하의 부양아동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6세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을 때 소득공제 해주는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이하 양육비 공제)'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1인당 70만원 한도의 '유치원 교육비 공제(이하 유치원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인적공제 후자는 특별공제에 해당된다. 이 둘은 1996년도 연말정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보육계에 거친 항의를 받은 것이 바로 유치원 공제이다.

<표 2> 조세지원제도 중 소득공제의 내용 - 1996년도

구분	공제내역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본공제	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사유당 50만원씩 기본공제에 가산하여 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초공제대상자가 1인의 경우 연 100만원, 2인의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생략	
교육비	유치원 : 1인당 70만원 한도(신설) 초·중·고 : 전액, 대학교 : 1인당 230만원	

자료 : 재정경제원(1996), [조세개요] 참고

10) 1990년 기준 연소득 \$150,000이상이면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김태성, 1996).

11) 우리 나라는 보육비 공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갖는 두 개의 공제제도 중 하나로 살펴본다.

조세지원제도는 원래 과세대상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비용을 지원 받는 생활보호대상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는 보육비용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양 제도에 의한 보육비 지원효과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 면세대상인 생활보호대상가구와 저소득가구도 비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단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개별기업의 지원효과는 제외시켰다. 지원효과를 소득계층별, 아동 수별, 아동상황(이용시설 종류)별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원효과의 절대액은 물론 그 내적 특성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비교집단의 분류

정부의 조세지원제도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비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3 참고).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은 소득규모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에 준하여 생활보호대상가구, 저소득가구, 일반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형 사회복지의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익자부담의 원칙¹²⁾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적절한 구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개별 가족이 소득규모에 따라 동일집단에 속한다고 해도 조세지원제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유치원공제의 자격과 관련하여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구분되어야만 한다.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4개의 비교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두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첫 번째는 생활보호대상가구 집단으로 '96년 현재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물론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제도에 의한 혜택은 없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아동들은 보육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비용 반액을 지원 받는 일반저소득층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하이다. 면세점 이상이나 이하이냐에 따라 양육비 지원이 있고 없다가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이하이면서 0세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세점이하 집단으로 가정한다. 세 번째 집단은 월소득 100만원 이상인 일반소득계층이며 양육비공제는 있지만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마찬가지로 월소득 100만원 이상이며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양육비공제는 물론 유치원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가정한다.

2) 지원효과의 비교

4개 집단간 정부지원 효과의 차이를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 번째 즉, 집단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실제 정부지원 보육비는 표준보육단가의 80%이고 나머지는 시설이 부담하는데 이 글에서는 순수한 정부의 재정지원만 고려되었다¹³⁾. 정부의 연간지원비용은 2세미만 아동에게 1,956천원, 2세 아동에게 1,632천원, 3세이상 아동에게 984천원이고 아동이 두명인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최고 3,912천원(2세미만 아동 두명), 최저 1,968천원(3세이상 아동 두명)이다.

12) 즉,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저생계비 미만 계층에게는 무료(생활보호대상자에게) 또는 일부 수익자부담 즉 실비를 부담시키고(저소득계층에게),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이용하게 한다(김연명, 1994:59).

13) 1996년도 표준보육단가 및 정부지원금

(천원/월,인)

두 번째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2세미만 아동에게 840천원, 2세 아동에게 696천원, 3세 이상 아동에게 558천원이며 아동이 두명인 가족에게는 최고 1,680천원(2세미만 아동 두명), 최저 1,116천원(3세이상아동 두명)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일반가구 I 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이 전혀 없고 연 50만원의 양육비 공제만을 받게 된다. 과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지원효과도 달라지는데 소득규모(과세표준)별로 4군으로 구분했을 때¹⁴⁾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군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5만원, 소득 2군은 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10만원, 소득 3군은 15%에 해당하는 연간 15만원을 그리고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4군은 20%에 해당하는 연간 20만원을 지원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양육비 공제는 아동 수에 상관없이 때문에 아동이 1명이든 2명이든 한 가족당 지원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세 번째 집단과 소득수준이 동일한 일반가구 II 집단에게는 양육비 공제 외에 유치원공제의 대상이 된다. 유치원공제는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로 이 경우도 양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누진제가 적용돼 소득 1군에 7만원, 소득 2군에 14만원, 소득 3군에 21만원, 소득 4군에 28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또 양육비 공제와는 달리 아동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 2명이 모두 유치원에 다닌다면 지원액은 이의 2배가 된다. 양육비 공제와 유치원 공제를 모두 고려한다면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연간 지원효과는 소득 1군이 12만원, 소득 2군이 24만원, 소득 3군이 36만원, 소득 4군이 48만원이고 아동이 2명이라면 소득군에 따라 연간 19만원에서 76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표 4는 정부 재정지원 효과를 상대지수로 평가해 본 것이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생활보호대상가구의 3세이상 아동 1명이 받는 정부 재정지원액을 100이라고 하였을 때의 상대지수는 동일 집단의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199, 2세 아동의 경우 166으로 나타난다. 저소득가구의 상대지수는 2세미만 아동 85, 2세 아동 71, 3세이상 아동 57로 나타난다. 일반가구 I 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대지수는 소득군에 따라 소득 1군에서 5, 그리고 소득이 가장 많은 4군에서 20이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둔 일반가구 II에 대한 상대지수는 소득 1군의 12부터 소득 4군의 49사이에 분포한다.

두명의 아동을 둔 가족에 대한 최대 지원액은 생활보호대상가구에 398, 저소득가구 I 에 171, 저소득가구 II에 176으로 나타나고 일반가구 I 에 대한 지원의 상대지수는 20, 그리고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일반가구 II에 대한 지수는 77이다.

4가지 유형을 비교해 볼 때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효과는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해 가장 크지만 일반가구 I, II를 통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만을 비교해본다면 아동이 1명인 일반가구 I 의 소득 1군의 상대지수는 5, 아동 2명이 있는 일반가구 II의 소득 4군의 상대지수는 77로 무려 15배의 지원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구 분	표 준 보 육 단 가			정 부 지 원 금	
	국고보조시설 ¹⁾	민간보육시설 ²⁾	가정보육시설	생활보호대상아동	저소득층아동
2세미만	204	283	310	163	70
2 세	171	230	310	136	58
3세이상	103	141	171	82	46.5

자료 : 보건복지부(1996), [영유아보육지침]

비고 : 1) 직장보육시설 포함

2) 국고보조 미지원 비영리법인시설 포함

14) 부부합산 과세표준이 0-1,000만원인 소득 1군은 기본세율 10%, 과세표준 1,000-4,000만원인 소득 2군은 기본세율 20%, 과세표준 4,000만원-8,000만원인 소득 3군은 기본세율 30%, 과세표준 8,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4군은 기본세율 40%가 적용된다.

< 표 3 >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996년

구분	생활보호대상가구	저소득 가구	일반소득 가구 I	일반 가구 II
소득/4인,월	8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일반저소득층 지원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적용대상	보육시설	보육시설	보육시설/일반아동	유치원
지원수준/연	보육료 전액 2세미만 1,956천원 2세 1,632천원 3세이상 984천원	보육료 반액 2세미만 840천원 2세 696천원 3세이상 558천원	자녀양육비공제 ¹⁾ 소득1군 ³⁾ 50천원 소득2군 100천원 소득3군 150천원 소득4군 200천원	자녀양육비공제 소득1군 50천원 소득2군 100천원 소득3군 150천원 소득4군 200천원 유치원교육비공제 ²⁾ 소득1군 70천원 소득2군 140천원 소득3군 210천원 소득4군 280천원
연간 지원효과	아동 1인 기준 최대 1,956천원 최소 984천원 아동 2인 기준 최대 3,912천원 최소 1,968천원	아동 1인 기준 최대 840천원 최소 558천원 아동 2인 기준 최대 1,680천원 최소 1,116천원	아동 1인 기준 소득1군 50천원 소득2군 100천원 소득3군 150천원 소득4군 200천원 아동 2인 기준 소득1군 50천원 소득2군 100천원 소득3군 150천원 소득4군 200천원	아동 1인 기준 소득1군 120천원 소득2군 240천원 소득3군 360천원 소득4군 480천원 아동 2인 기준 소득1군 190천원 소득2군 380천원 소득3군 570천원 소득4군 760천원

자료 : 백선희(1996), p.285

- 비고 : 1)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6세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연 50만원 공제
2) 필요경비적 공제로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
3) 과세표준에 따른 구분으로 부부합산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필요경비적 공제를 제외한 소득액에 따라
① 소득1군은 0-1,000만원(기본세율 10%)
② 소득2군은 1,000-4,000만원(기본세율 20%)
③ 소득3군은 4,000만원-8,000만원(기본세율 30%)
④ 소득4군은 8,000만원 초과(기본세율 40%)로 구분함

< 표 4 >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정부재정지원 효과의 상대지수

	생활보호대상가구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I	일반가구 II
아동 1인	2세미만 199 2세 166 3세이상 100	2세미만 85 2세 71 3세이상 57	소득 1군 5 소득 2군 10 소득 3군 15 소득 4군 20	소득 1군 12 소득 2군 24 소득 3군 37 소득 4군 49
아동 2인 ¹⁾	최대 398 최소 200	최대 171 최소 113	소득 1군 5 소득 2군 10 소득 3군 15 소득 4군 20	소득 1군 19 소득 2군 39 소득 3군 58 소득 4군 77

자료 : 백선희(1996), p.267.

- 비고 : 생활보호대상가구 3세이상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상대지수
1) 아동 2인이 있을 경우 정부의 최대지원액은 만 2세 자녀 2인일 경우, 최소지원액은 만 3세이상 자녀 2인일 경우를 말함

2.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불평등적 재분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면세 대상과 과세대상간의 불평등적 재분배이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와 저소득층가구는 영유아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 일반 소득계층과 비교해 정부의 재정지원효과는 크지만 두 집단 모두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그 효과가 조세지원제도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

둘째, 소득계층간 불평등적 재분배이다. 소득계층간 불평등 즉, 수직적 재분배의 역진성의 문제는 조세지원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되는 문제이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의 누진율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효과가 낮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효과도 높아지는 역진적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지만 실질 지원효과는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군을 기준으로 소득 2군이 2배, 소득 3군은 3배, 소득 4군은 4배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공제한도가 양육비 공제보다 높고, 아동수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일반가구 I과 일반가구 II의 불평등적 재분배는 아동이 1명 일 때는 5만원에서 48만원까지 최고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아동이 2명 일 때 5만원에서 76만원까지 최고 15배의 차이를 보인다.

셋째, 이용시설 종류별 불평등적 재분배이다.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니느냐 유치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효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조세지원제도는 유치원 교육비만을 교육비로 인정하여 1인당 연간 7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조건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어떠한 시설도 다니지 않는 것보다 유치원에 다닐 때 지원효과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IV. 결론 : 보육비 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작년에 처음으로 자녀양육비 공제와 유치원교육비 공제가 도입되었다. 공교육과정이 아닌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게 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아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의 보육비용을 사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동수당 도입의 계획이 전혀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우선적으로나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아동수당과 목적과 효과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면세집단이 제외되고 소득계층간 역진적 재분배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육비용을 사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될 수 없다. 단지 조세지원제도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아동에 대한 보편적 급여를 시도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수당 도입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활용가치를 지닌다.

조세지원제도의 의미와 활용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할 때는 그 한계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보육료 공제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보육비 공제의 도입과 관련해 두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유치원 공제 방식대

로 소득공제의 하나로 도입된다면 지금까지 지적하여 온 조세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소득계 중간 역진적 재분배라는 문제를 그대로 갖게 된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과감히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든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즉, 고소득자에게는 낮게, 저소득자에게는 높게 지원)을 한다면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아동보육율은 낮은 편으로 집에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또 친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배제하는 현재의 정부 안대로라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논란거리였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형평성의 문제와 똑같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보육료에 대한 공제는 기타의 경우에 비해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동 보육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여 점차 보육비 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료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최근의 정부의 발표는 작년에 있었던 '유치원 교육비공제, 보육시설 보육료 배제'라는 논란의 끝이 아니라 보육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균(1986), "영국의 사회복지", [각국의 사회보장], 신성중 외, 예문출판사
 김연명(1994), "보육비용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개혁과제], 한국영유아 보육학회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태성(1996),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제7호,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원
 동국대부설사회조사연구소(1992), [유럽공동체 12개국의 탁아현황과 탁아정책]
 백선희(1996), "6세이하 아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불평등성에 관한 연구",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 개발 발표 논문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보건복지부(1996), [영유아보육지침]
 윤건영, 임주옥(1993),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이해영, 한승수(1988), [영국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출판부
 재정경제원(1996), [조세개요]

- Chris Pond(1980), "Tax Expenditures and Fisical Welfare", *Taxation and Social Policy*, ed Cedric Sandford, Chris Pond and Robert Walker, Heinemann Education Books, London
 OECD(1994), *The Tax/Benefit Positoin of Production Workers-Annual Report 1990-1993*
 Ruth Lister(1980), "Taxation, Woman and the Family", ed Cedric Sandford, Chris Pond and Robert Walker, *Taxation and Social Policy*, Heinemann Education Books, London
 Smeeding, T.M., M. O'Higgins and L.Rainwater(1990), *Poverty, Ine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Urbam Institute Pres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199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5*, Washington,DC
 Richard Titmuss(1976), *Essays on the Welfare State*, 3rd 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野澤正子(1991), [兒童養護論], 장영인 역,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1995
 井垣章二(1985), [兒童福祉-現代社會と兒童問題], ミネルバ書房
 孝橋正一(1989), [現代 社會福祉 政策論], ミネヘウア

보육정책

97보육사업지침에 대한 본회의 의견

정책개발위원회

편집자주 : 본회의 정책개발위원회에서 보육사업지침을 분석하며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저소득층지원 단가 상승등 많은 부분 고무적이라 평가함과 동시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몇가지 제고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3월중 보건복지부에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 보육사업지침과 소식지 12월호를 참고하십시오.

1. 보육교사 자격인정 관련사항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와 보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하여는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자격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을 교육공무원(공립유치원교사)수준화-2000년까지-하는 등 보육교사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시각정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육교사교육원 운영방향(지침157쪽)

가. ~ 나. 기재삭제
 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보육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보육교사자격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보육교사 단기양성교육원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존시설은 전문대학이상 수준의 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
 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장·단기적 교육훈련기간의 차등연장, 실기·실습기간의 연장, 수료인정기준 강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화 등 운영내실화 방안 추진

세부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교육훈련시설 교육기간 및 내용 강화되어야 한다.

○ 보육학과 설치로 가는 과도기므로 현행기준중(161쪽) 특히 부적당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교육기간을 연장하여 보육의 질을 담보할 예비교사와 원장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자격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 보육프로그램 신규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1년에 0차례 진행되고 있으나, 교사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 보수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신규 연구용역사업으로 계획·실시 되어야 한다.

다.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승급교육의 기간 및 내용 차별화하여 개발·실시

- 2급 → 승급시 유아교육 실기교육 다양화 필요

- 1급 → 시설장 승급시 지역사회복지론, 조직기술론 등 직위별 필요업무 재교육 필요

○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1년 00시간 의무화하여 경력, 직책에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자기개발에 힘쓰게 한다.

라. 현행 자격인정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세분화

- 시설장 자격기준 중 보육시설 근무경력(시설장과 교사로 국한)을 필수경력화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 세분화: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자격을 보육교사 1급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양성교육과정등 2급 보육교사자격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는 40인미만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나 20인 미만 놀이방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경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 인정범위 및 인정교과목 재조정 필요

- 현행제도는 12개학과(64쪽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초등교육학과)를 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는데

- 관련학과 범위를 보육시설에 필요한 전제종사자와 관련된 전학과로 하기보다는 보육시설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수적인 유아교육·아동학과·복지학과로 제한하는 것이 이들 관련학과 진출자들의 취업유도를 위해 바람직하고

- 또한 인정교과목(291쪽)의 구분을 하는 기준과 해당교과목의 재배정이 필요하다.

현행제도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영유아 발달과 교육등,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등,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 이론등으로 구분하고 해당교과목으로 위의 12개관련학과의 교과를 고르게 분포시켜 놓아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교과이수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구분항목을 교육·보호·복지·행정·실기등으로 재배정 한후 되도록 구분항목별로 타학과의 교과목이 배치되도록 재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2. 종사자 경력인정제도

1) 경력인정제도 개선의 문제점

“ '96말 현재 인가 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자가 '97.1.1이후 (이전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다 이직

시에만 이전경력을 인정한다-보건복지부 확인사항임)타지역(전국)소재시설 이직시 이전에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 호봉 산정”

시설운영자의 인건비 부담완화와 동일시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력인정범위를 최소화하던 기존입장에서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보육교사의 불만해소·우수경력교사유치를 위해 도입한 듯 보이나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

가. 첫째 형평성의 문제다

'96년 12월 중순경 이직교사의 경력불인정, 12월말 현재 지자체의 종사자관리대장에 현직교사로 등록되어 있지 못한 교사들의 경력불인정,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2개월정도의 휴직시 경력불인정등 제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있다.

나. 둘째 경력교사의 취업회피의 문제를 예방키 위한 인건비 보조확대의 필요성이다.

'97년 인건비 인상을 18.9%와 보육교사의 이직시 호봉인정 등으로 기존시설 뿐 아니라 특히 확충 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신규시설의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유형별 기준(95쪽)이 확대되지 않아 시설과 지자체의 부담과중으로 시설에서의 경력교사 회피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시설 교사중 인건비 비지원교사의 호봉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셋째, 보육시설 경력인정외에 학력인정·유사경력인정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95년 말 수도권지역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17개소·시청1개소·삼성공익재단 등 19개소를 전 화설문한 결과 74%(14개소)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1%(삼성재단 26개 보육시설 포함)에서 학력과 경력을 별도로 인정하거나 5%(1개소)가 유사경력까지 인정하여 보수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유치원교사의 보수지침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서도 유치원 경력·학력·기타경력까지 인정하여 호봉산정하고 있다.

·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출신 초임호봉 6호봉, 4년제 유아교육학과 출신 초임 9호봉, 1급 정교사자격 취득시 1호봉 추가인정함

공무원 보수규정(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발췌분)

환산율	경 령
10할	공·사립교원(보육교사 병설전임강사도 인정), 공무원(기능직, 고용직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8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한 자로서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력
6할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5할	공공단체 근무경력, 법인 근무경력,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 근무경력
4할	각종 회사에서 근무경력(외교인, 점원은 제외)
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경력외에는 군복무 의무기간 3년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 보육교사의 질 제고기 위한 학력인정제 도입시 고졸1호봉, 전문대2호봉, 대졸3호봉으로 인정하여 호봉제획정이 확대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유사경력 인정범위 및 환산율은 각계여론 수렴등이 필요할 듯 보이며 제안가능한 사항은 보육지도원과 관련직공무원 경력 10할인정, 아동복지 관련법인 근무와 관련단체 근무경력 5할인정, 전임이상 강사경력 인정율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라. 교사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경력인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종사자 관리업무의 객관성확보가 뒤따라야지만 현재 휴·폐업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위 개선제도의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인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의 4대보험 가입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민간교사 인건비중 각종 수당 정부지원 검토되어야 한다.

'97년 정부지원시설 교사인건비는 18.9%인상에 따라 월평균(1호봉기준)102만원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민간·가정시설 1급교사인건비는 약 70만원수준(월급여 55만원, 상여금200%)으로 정부지원교사 수준의 68%정도라고 볼 때

가. 민간·가정시설이 보육시설점유율 89%, 아동보육율 76%인점을 고려할 때 민간·가정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

나. '97적용수당을 전제교사에게 지급시 약5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당지급시 정부지원시설 교사수준의 인건비 80%수준으로 상향되리라 본다

이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시설 교사처우의 심한 격차로 인해 민간·가정시설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수혜자들도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가정시설 교사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

일본연수기

일본(교토, 오오사카)보육소를 찾아서

김 해원 (부산, 우리들의 집 교사)

지난 6년간 일해왔던 우리들의 집을 그만두고 앤지 하루하루가 허전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이었다.

따르릉 울리는 전화기를 받자 "언니 일 그만두고 쉼다며 이우주샘이 이번 일본여행에 언니도 같이 오라더라" 이렇게 우연히 이 여행에 함께 가게되었다.

늘 하던 일과 늘 보던 아이들로부터 떨어져 마음이 두승승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따라 나선 일본행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초청자답게 뽀뽀하게 잡혀있는 일정표!

새벽 6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섯 곳의 보육소와 두곳의 유치원, 방과후 보육을 하는 청소년 회관, 키노쿠니학교와 일본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 마지막날 이찌지마현의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일정표대로 끝나고 나니 녹초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깥놀이터와 집단활동을 하는 실내강당을 갖추고 있는 보육소와 바깥에는 눈이 오는 추운 날씨였는데도 찬 마루바닥에 맨발에 팬티바람으로 피부단련맛사지를 하는 아이들을 잇을 수가 없다.

첫째날 교육재단에서 한분과 시의원 한분의 안내를 받고 제일 처음 간 송원시립 제2보육소는 마쓰바라시에 있는 피차별지역안의 보육소였다. 차별을 받고 있는 부락의 어머니들은 정식으로 취직을 할수 없었고 취업증명을 할 수 없어 아이를 보육소에 보낼 수 없었고 그 아이들은 보육이 부족한 아이로 간주하여 모든 피차별 부락에 보

육소를 만들어 피차별부락 출신 아이들을 조치시키도록 한 동화보육운동과정인 1966년에 설립된 보육소였다.

"지금현실적으로 부락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외톨이라고 생각할때 그 차별에 자신이 파괴되어가는 것같이 생각이 되고 자기와 함께 하는 친구가 주위에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넘쳐 흐를 수 있다. 부모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표구가 현관입구에 크게 걸려있었다.

1991년에 졸업한 장미반 아이들이 졸업식때 한 말을 부모들이 표구를 해서 걸어 둔 것이라고 하는데 부락차별에 대항해 싸우는 아이로 키워나가 고자 하는 동화보육의 교육목표를 알 수 있었다.

인지적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해 개성을 찾아가는 것이 보육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이들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일본 전체적 보육의 흐름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행을 놀라게 했던 것은 함께 갔던 시의원이 30년전에 이 보육원을 다녔고 둘째와 셋째아이가 이 보육원을 다닌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로 갔었던 미하라 대지 유치원은 다섯개의 작은 유치원을 통합했다고 하는데 시설이 굉장히 컸다.

3~5세아 아이 500명을 돌보고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목표라고 한다. 자연농원에서 직접 무, 양파, 감자, 여름야채, 화초도 키우고 놀이기구도 대나무 숲길을 이용해 만들고 놀이중심의

교육을 한다.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위해 페스티벌(공연), 직접 농사지은 무를 지역 양로원에 갖다드리기, 정월 보름날 떡치기 등의 행사를 한다고 한다.

송원 시립 포인유치원은 일반적인 공립유치원 이란다. 시설은 동화 보육소와 거의 유사했다.

좋은 시설과 인지교육이

한참 틈을 이루던 몇 년전에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놀이를 통한 생활교육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교류를 위한 행사를 한다.

경도대학안의 아까이 미 보육원은 어린이의 발달과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 교사들의 권익보장을 지켜나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1964년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험기간을 거쳐 1964년 공동보육의 기치를 내걸고 아까이 미 보육원을 발족했다. 경도대학 직원조합이 만들어지고 경도대와 협상, 처음 시작때는 경도대학 제일 후미진 곳에서 시작했다.

1965년에서1969년 인가 받기까지 4년간 무척 힘든 과정이었다. 교사들에게 월급지급도 힘들었고 물품은 후원을 받아 운영해 나갔다. 02개월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시에서는 4시까지가 기준이었는데 6시까지 보육시간을 늘려갔고 시와 경도대학에 지원을 요구해 나갔다.

앞치마에 원조내용을 적고 아이를 안고 경도대학 각 학부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다녔다는 원장 선생님은 살아있는 전설 같았다.

그래서 1969년 경도시에 인가를 받고 1977년 120명의 영유아를 돌보게 되었다. 영아보육만으



사키야마 보육원

일본기와 태극기를 만든 아이들의 환영식

은 남자선생님이 세분 계셨는데 그중 한분은

보육교사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였다.

보육소에 남자가 있으로서 여자선생님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 줄수 있고 남자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어 부모들도 좋아한다고 한다.

이곳도 특별한 인지교육이 없이 놀이속에서 배우고 생활 교육속에서 습관형성을 해 나가는 충분히 놀고 자고 먹는 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다.

영아반은 노는방 먹는방 자는방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따로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이 일정치 않은 아기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이 모든 배려들은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시간 동안 하나씩 천천히 바뀌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현재 정부지원이 점점 줄고 있고 경도대학에서도 지원이 끊어진 상태라 아이들의 발달과 부모들의 일할 권리, 교사들의 복지의 문제들을 지켜 나갈 것이 지금의 큰 과제라고 한다.

대판 중앙병원 직장보육소에서는 들어서자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태극기와 일본기를 흔들며 열렬한 환영을 했다. 여섯 일곱살난 아이들이 지난 1년간 활동했던 내용이라며 공연

로 출발했는데 2세후에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요구와 영아반 돌보므로써 너무나 힘들었고 또 키운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싶은 교사들의 바람이 유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곳

까지 보여주었다. 직장보육소를 겸하고 있으며 주택을 개조해서 보육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영아반 유아반 유치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큰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동안 영아반 아이들은 푹푹 자고 있었다.

노조미노 동 보육소는 사회복지재단이라는 특징으로 다양한 보육과 지역문제도 함께하고 있었다.

1923년 교회에서 창립했고 1949년에 노조미노 동 보육원으로 발족했다. 이곳은 아주 다양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동보육, 장애아 공동보육, 영유아 보육, 야간 보육, 시간 보육, 병아보육, 연장보육, 일시보육까지 그리고 지역노인 석식 택배까지 하고 공생공육의 보육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는 집단보육, 놀이중심의 보육이 보육방침이라고 했다. 지택연에서 왔다갔다하는 표의 자그만 액자가 무척 반가웠다.



이제지마현에 있는 사키야마 보육소는 하얗게 눈에 싸여 있어 동화나라라도 온 듯 했다. 이곳에서도 준비를 한 듯 태극기와 일본기를 흔들며 아이들이 무척 반겨주었다. 자기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한국의 아이들도 햄버거를 좋아하는나고 물어오는 아이도 있었다. 굳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때는 말이 통한다면 일본아이들의 생각에 접근해 보고싶은 안타까움이 일었다.

이 보육소는 40년전 스웨덴에서 환경보호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요정 "문레"라는 프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문레는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자연속에서 키우므로써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매주 목요일 문레교실이 있어 자연속으로 간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 후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곳의 보육목표는 아이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풍요한 인간성을 가진 아이로 육성하고 활달하고 원기있는 아이,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 자기 생각을 관철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그날은 비가 많이 석인 진눈개비가 와서 아이들의 야외프로그램을 볼 수 없었다. 정년퇴직을 앞둔 썩썩한 원장할머니의 선물까지 받고 마지막 일정을 끝냈다.

모든 보육소에서 공동으로 볼 수 있는 피부단

동화보육원의 피부단련 맛사지

련맛사지용 수건, 마루바닥에 맨발의 아이들, 교구장동이 거의 없고 있어도 모두 벽쪽으로 밀어두어 아이들을 위한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한 흔적들, 아이들의 작품으로만 환경구성을 해두어 조금은 구질구질해 보이는 방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짝짝여진 프로그램 없이 그냥 막 뛰어놀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일본의 공동육아제도에서 볼 수 있는 진보적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여성단체들과 혁신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고 한다.

가두시위 농성과 모금, 서명운동과 선거참여 또는 법정소송까지 일하는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사회적 정치적 투쟁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본의 보육운동을 이끌었음직한 일본에서 만난 보육경력 30년의 보육교사들은 살아있는 전설처럼 보였다.

경력 10년에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우리들의 집을 나온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여행이었다. 서혁민

육아정보

활용도에 따라 변하는 TV의 가치

- 텔레비전과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 -

이혜영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설 연휴를 보냈다. 이번 연휴에 문여는 곳이 고궁과 극장 뿐이라 가까운 고궁에 들러 '잠시 바깥바람을 쏘인 후' 줄곧 집안에 있었다. 결국 평일보다 온종일 집안에 있는 날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만다. 이리저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봐도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프로는 별로 없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연어의 생태를 꼼꼼히 살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가 눈에 띄었다. 중간에 인터뷰내용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약간 어렵긴 했으나 다행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동안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많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귀 따가울만큼 들었다. 따라서 부모들을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알고 있지만 막상 자녀들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즐겨보는 것에 대해 두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분들이 많다. 하나는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동과 교육적 효과를 얻는다 해도 현재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되도록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말리는 편이요, 다른 하나는 부모가 다른 일로 바빠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때 그동안

텔레비전에 아이를 떠맡기다시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지금 아이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명한 칼라텔레비전이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 자란다. 더구나 정보화시대를 맞아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비롯한 영상매체의 역할은 오랫동안 지식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와 더불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이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지도할 때 흔히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지 알아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각 방송국의 아침과 저녁시간 프로그램에 일부 어린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도 주로 만화영화로 채워진다. 이런 어린이 만화영화는 내용상 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지 모르나 사실상 자세히 보면 지나친 폭력성이 드러나는 등 아주 해로운 경우마저 꽤 있어 골라봐야 한다.

한편 보통 부모들은 "교육방송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줄 알면서도 정작 흥미를 끌지 못하는 내용일거라 짐작해 선뜻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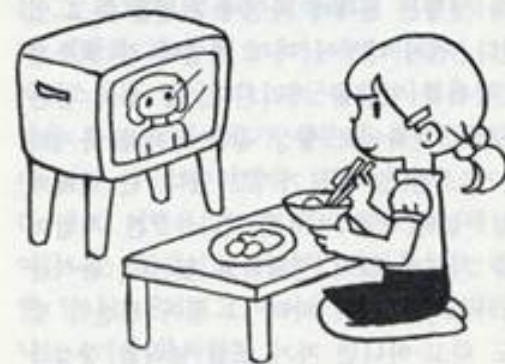
말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방송국의 몇가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방송국들에 비해 건전하면서 점점 흥미도 돋구어 가고 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특히 각 방송국의 동·식물의 생태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가운데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아 아이들이 눈여겨 볼만해도 종종 같은 시간대의 오락프로에 밀려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기 일쑤이다.

그리고 비디오를 즐겨보는 어린이가 늘어나면서 동네 비디오대여점에는 단골손님으로 어린이가 끼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끔 비디오대여점을 드나들 때마다 마주치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디즈니나 일본 만화영화들이 수두룩할 뿐 다양한 장르에 독특한 예술기법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눈 씻고 찾아보아도 거의 안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이미 출판된 그림책의 내용을 비디오화면에 담아 신선한 경험을 보태주는 소위 '그림책 비디오' 몇 편을 시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책<눈사람 아저씨>

(가나출판사)와 레오 리오니의 작품시리즈<잠잠이>(분도출판사)와 다수, 세계명작시리즈<별거벗은 임금님>외 다수가 <스노우맨>(인피니스), <레오 리오니의 다섯가지 동물우화>(성 베니덕도), <별거벗은 임금님>(계몽아트콤)등의 비디오 프로그램으로 곳곳의 어린이 전문서점에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유통상의 문제로 일반 비디오 대여점이나 소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YMCA의 건전비디오 연구모임에서 추천한 비디오 목록 가운데 아이의 수준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골라 각 지역의 '오뎅과 버금'이나 '영화마을'같은 비디오대여점에 가면 빌려볼 수 있다. 또 어린이 비디오도서관(한겨레문화센터 내)에 가서 언제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빌려보거나 살 수 있다.

이처럼 아이들이 불만만 프로그램은 쉽사리 우리 눈에 들어 오지 않고 아직도 애써 찾아야 구해볼 수 있는 형편이다. **서혁민**



교사의 의견

우리의 식생활과 숙변의 관계에 대한 짧은 지식과 나의 생각

이 애용 (남부, 새터어린이집 전 교사)

편집자주 : 이애용선생님은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에서 실시한 전문가교육과정-96년, 1년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아래의 글은 교육을 마치며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로부터 1년동안 교육받은 것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리포트를 써보라는 제안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우리네 아이들」 독자들 과도 나누고자 편집부로 보내주셨습니다.

1. 자연에 기원을 두고 있는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모든 것이 태어난 제 몸대로 살아갈 것을 사람이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 지구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속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생물은 병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인간은 온갖 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병으로 제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인간의 생명은 원래 자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인체 내부에 이미 자연에 잘 적응된 체제가 갖춰져 있음을 가리킨다. 즉 우리 몸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인체의 자기조절 능력(자연 치유력)이라는 건 사람이 얼마만큼 자연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힘이 완전히 발휘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2. 사람들의 식생활

자연 치유 건강법의 기본 철학은 인체가 완전함을 전제로 하여 지금의 불균형을 없애 주면 저절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지금 이 신체의 불균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무엇이 그토록 인간의 인체를 망가뜨렸는지 살펴해보려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부엌에서 찾아보자. 부엌 냉장고 냉동실에는 고기가 잔뜩들어있다. 지금은 겨울인데도 봄 여름이나 먹는 냉이, 달래, 취나물, 오이, 토마토 등이 야채상자에 들어 있고 음료수가 종류별로 꽂 차 있다. 조미료 통을 보면 흰설탕, 흰소금, 화학 조미료, 다시마 등이 들어 있다. 집안 창문은 꼭 닫혀있고 공기는 탁해서 숨이 막히려고 한다. 그래도 춥다고 화학섬유로 된 옷을 잔뜩 껴입고 있다. 슈퍼에서 산 방부제가 든 된장을 풀어 다시마, 화학 조미료, 흰소금을 넣은 국에다 오이 무침, 고기 볶음, 햄부침, 슈퍼에서 산 동그랑 땃등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새하얀 쌀밥을 양껏 퍼서 밥을 맛있게 먹는다. 후식으로는 딸기를 먹는다. 몸은 점점 뚱뚱해져 가고 30대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차에다 다리를 모시고 편안히 불일을 보러 간다. 입이 심심해서 방부제에다 농약이 묻은 수입된 흰밀가루에다 온갖 이름도 모르는 식품 첨가제가 든 과자를 먹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식구들과 먹을 까맣게 탄 기름에 튀겨져 나온 통닭을 한마리 사들고 들어온다. 이런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사는 모습이다. 나도 그랬다. 음식엔 당연히 화학 조미료, 다시마는 들어가야 했고, 집에 없으면 가게로 뛰어가 뛰어가 사서라도 넣어 먹었다. 제철에 나지 않은 과일이 보이면 먹고 싶어했고, 흰설탕을 음식할때 넣어 먹었다. 음식이 싱거우면 흰소금을 집어 넣었고, 도대체 어떤 식품첨가제가 들어있는지 관심도 없이 통조림을 사서 맛있게 먹곤 했다.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데도 얼굴은 점점 까맣게 타 들어가고 몸은 피곤하고 무기력중에 시달리고 점점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 걸핏하면 남에게 화를 잘 내고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몸은 점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병에 걸릴 것같아 두렵기만 하였다. 왜 그럴까? 나이탓일까 나이탓이라고 하기엔 난 아직 젊은데. 그러면 오염된 환경 때문일까 하는 온갖 근심만 가득하였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아야한다.

3.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식생활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식을 먹어야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음식이라는 것은 옛날과 지금은 거의 반대로 가고 있다.

내 어렸을 적만 해도 집에 있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에다 집에서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에다 씨눈이 붙어 있는 현미에다 우물에서 길어온 살아 있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먹은 만큼 배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푸세식 화장실에서 모아진 변은 밭에 뿌려졌고 그 밭에서 자라난 채소는 벌레가 이파리를 먹어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금방 뽑아서 무쳐서 상에

올려 먹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었다. 이때 배설을 어찌서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잘되었을까? 그런 모든 음식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미의 씨눈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수많은 정보와 영양소가 들어 있고 섬유질과 배독작용이 강한 휘천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농약의 독뿐 아니라 체내의 다른 독소까지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재철에 는 채소를 먹으면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었다. 섬유소란 무엇일까? 섬유소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도울 뿐 아니라 장을 청소한다. 즉 먹은 음식물이 장안에 머물러 장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여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독을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일을 한다. 섬유질은 다른 물질을 자기 몸에 흡착시키는 기능이 강한 비영양 물질이다. 그 자체가 소화되지는 않는다.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온 섬유질은 영양분을 자기 몸으로 흡착하여 그것이 소장 벽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한 다음 가장으로 부드럽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또 섬유질의 중요한 역할은 과잉 영양분과 우리 몸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 염분 기타 병의 원인이 되는 각종 유독 물질을 자기 몸에 흡착하여 노폐물의 집합 장소인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그곳의 노폐물까지 자기 몸에 흡착시킨 뒤 대변이 되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섬유질은 현미, 통밀, 통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비롯한 곡식의 겉껍질에 모여 있고, 채소는 그 자체가 섬유질 덩어리다. 이런 것을 먹는 게 생활화 되어 있으니 배설이 잘된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사람은 원래 채식을 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육식동물보다 장이 길다. 우리의 이빨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다. 우리 이빨은 32개인데 곡식을 먹는데 적합한 어금니는 20개이고 야채와 과일을 먹는데 적합한 앞니는 8개이고 육식을 먹는데 알맞은 송곳니는 4개에 불과하다.

된장, 고추장, 간장에 들어간 소금은 정제되지

않는 바다에서 추출한 천연 소금이었다. 소금이 몸속에서 하는 일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음식을 분해, 소화하는 신진대사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몸속에 염도가 부족해지면 곧 신진대사가 부진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근육이 굳어져 딱딱해지고 권태감과 피로를 쉬 느끼게 된다. 신진대사가 지체되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 보내는 일이 제대로 되지못하므로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된다. 소금은 위액의 위염산의 주성분이다.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적혈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적혈구의 주성분은 철분인데 철분인데 철분은 위염 산으로만 소화 흡수된다. 적혈구의 역할은 세포에 영양분을 운반하고 세포에서 독소(주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설하는 일을 하는데 만약 적혈구가 부족하면 몸 속에 독소가 퍼지게 되고 각종 병이 생기게 된다.

4. 만병의 근원이라는 숙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농부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은 쌀은 껍질을 벗길 대로 벗겨 씨눈조차 없어진 죽은 쌀이 되어 버린 하얀 쌀을 먹게 되었고, 채소는 하우스에서 길러져 제철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기억도 희미해진 채로 사시사철 먹게 되었다. 거기에서 먹는 고기의 양은 점점 늘어만 간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도 성인병에 시달리다 죽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은 왜 그리 감기에 쉽게 걸리는지, 피부병에 다 변비, 설사 등 또 어른이나 걸리는 줄만 알았던 성인병을 일찍부터 앓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 같은 병을 불러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숙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다. 찾아본 결과 숙변을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었다. 음식물만큼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물론 우리의 몸을 정화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려면 어느 한 요소만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다. 음식물, 운동, 마음, 환경 등의 모든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온전히 되살아나게 된다. 인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소를 계속 섭취하고 소비한 다음 노폐물을 생산한다. 만약 노폐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인 경우 우리의 혈관은 말할 수 없이 탁하게 되어 탁해진 혈관이 온 몸을 돌면서 질병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가 있다. 우리 신체 기관 중 음식물을 소화 분해 흡수시키는 장은 채식을 하기 알맞게 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되면 제대로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장내에 머물게 된다. 장에 머무는 동안 이상발효를 일으켜 독소를 가득 만든다. 그 독소가 혈액 중에 흡수되면 온몸을 순환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로 가서 소화를 하고 소장으로 가서 영양분은 소장의 벽에 흡수되고 그 찌꺼기는 대장을 거쳐서 대변 소변이 되어 밖으로 나간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피를 통해 간장으로 간다. 간장은 소장에서 공급해 준 재료를 가지고 각종의 영양소를 만들어 우리 몸을 조직하는 최소 단위인 각종 세포로 간다. 만약 그 혈액 속에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생긴 독소가 함께 섞여서 간장으로 가소 간장에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그 독소가 운반되고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포 자체가 독을 품고 있는데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늘 장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소장과 대장에 묵은 똥이 가득차 있으면 맑은 피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 독의 재흡수로 인해 인체의 자연치유력도 약화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몸이 자연치유력을 상실한 채로 자식을 낳으면 내몸의 상태가 그대로 자식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

피를 탁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숙변은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물 때문이다.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 각종 고기류, 넘치는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소장과 대장을 합친 긴 통로를 헤쳐나오는 동안 구석구석 이물이 끼게 된 것이 숙변이다. 숙변의 주성분은 음식물 찌꺼기, 불용성 칼슘, 죽은 박테리아 덩어리 등 그 외 잡다한 물질이 섞여 있다.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육식과 넘치는 양의 음식을 먹은 요즘 사람들은 그야말로 숙변을 만드는데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숙변뿐만 아니라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생활해 왔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물을 해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배설을 통해 다시 자연물에 되돌려 주는 그런 생활이 불과 몇 십년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5.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할 일

현대에서는 완전히 자연스런 것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공해의 오염은 전 지구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농약의 자연농법이 라고 해도 완결 무결한 자연식은 아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몸안의 자연성을 눈뜨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을 때 그해를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하고 우리에게 맞춘 자연식은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구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우리 먹을 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없다. 망가진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뿐이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오만함이다. 사람의 외의 자연물은 우리 마음대로 망가뜨려도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다는 오만함,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라고 하면서 임신여기는 마음들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찌될지 모르겠다. 사실 모든 불행은

사람들의 지혜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걸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어느 분의 경험에서 나온 말을 내가 빌어서 하는 말이다. 사람들의 지혜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가공해서 우리의 편리를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불행한 현실이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제 몸 생긴대로 순리에 맞게 살다가 간다. 사람만이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과 한몸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선 내 몸에 붙어 있는 나쁜 습관을 걷어 내고 매일매일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만으로 안된다. 무엇이든 나부터 시작되고 내몸이 자연으로 되돌아 보도록 노력을 하면서, 내가 몸소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는 요즘 쉬면서 그 동안 배워 왔던 것을 하나하나 내몸으로 해보려 한다. 식사는 현미, 채식으로 할 것이고, 몸이 아파 하고싶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내 동생과 같이 해보려고 한다. 냉온욕, 풍욕, 봉어운동, 모관운동등등 그 동안 얼렁뚱땅 해 왔던 것들을 제대로 해보고 내 몸이 달라진다면 가족들부터, 내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부터 내 경험을 얘기해 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

지금 상태는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이걸 그만큼 내가 자연과 떨어진 곳에 와 있다는 거다. 모든 일은 어렵게만 여기면 정말 어려운 것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해결은 가까운 곳에서 얻게 되는 일이 많다.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내몸이 알아서 저절로 자연성에 눈을 뜨고 자연에 맞는 것만을 원하게 될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날이 나를 해방시키고 억압에서 풀려나는 날이 될 것이다. **[자연]**

참고서적

- ♣ 생명을 살리는 명물 77 / 김순남 저 / 여성신문
- ♣ 내몸 내 건강 / 김경민 저 / 서울경제
- ♣ 공생사 건강법 / 연영환 저 / 동진출판사
- ♣ 자연식 건강법 / 모리사카 게이이치 / 국민건강 연구회

세상 읽기

한사람의 열걸음보다는 열사람이 한걸음씩

위.양자 (본회 부회장)

올해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되고 6년째 접어드는 해입니다. 양적확충을 위한 3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고, 보육사업이 내실을 기하며 질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97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도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의지, 보육정보센터의 추가 설치 계획,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들이 '97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간 양적확충에 치우쳐 보육의 질에 대한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보육교사보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9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각종 수당도 신설하였는데, 이는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시작이라는 일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봄이 오면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어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앗을 뿌릴 지 해갈이를 해야 할 지 가늠하는 것에서부터,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종자를 고르고 뿌리는 일까지 한해농사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간의 보육정책은 단기간의 양적확충을 위해 사실상 수혜의 주체인 아이들의 소외와 보육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실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동과 보육교사가 소외된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은 늘었지만 또다시 보육료를 낼 수 없어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기게 했고, 경력과 전문성을 높여가며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보육교사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여 실제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부가 한해 농사를 지을 때 아무 씨앗이나 뿌려놓고 잘나기를 기다린다면,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도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추수 때에 풍요로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보육교사들은 아동중심의 보육을 이뤄내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는 '97년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단추가 남으며 옷의 모양이 균형을 잃는다는 사실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일까요? 한 아이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먹지 못하고,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어느 씨앗을 가리지 않듯 대자연의 보편주의를 배우지 못하는 정부의 편협한 정책인지 때문 일까요? 아니면, 그간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당



해 온 현실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의 한숨 때문일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치열했던 '80년대엔 "억 억"하더니 20세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 '90년대엔 "조 조"하는 정.재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어느 아이가 어느 보육시설에 가든 동일하게 국가와 지방정부, 부모의 공동책임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비현실적일까요? 이는 어느 보육교사가 어느 보육시설에 근무하든 이라는 조건의 해결과 동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97년을 살아가는 보육교사들은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의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민간이라는 시설 설치자에 따른 구분과 차별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들을 보육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 아이들의 눈으로, 힘들고 박봉이라 결혼하기 전에만 하는 떠나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픈 애정 어린 일터를 만들기 위해 — 뜻과 지혜를 모아 이제부터는 함께 발을 내딛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에 관심도 없고 보육이라는 말도 없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온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이제 '97년을 맞아 "(가칭)한국보육교사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보육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중심의 올바른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열걸음보다는 열사람이 한걸음씩 함께 나아간다면 좋은 씨앗을 더 넓은 땅에 뿌리고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적백민**

현장소식 ▶ 하나

튼튼이반 결혼식

고 정미 (인천, 햇살 어린이집 전교사, 현 인천지역위 사무국장)

편집자주 : 햇살 튼튼이반 수업 '몸 알기, 여자란 남자란? 우리는 커서 무엇이 될까?' 등 성교육을 진행하던 중 아이들이 진짜(?) 같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다 나요. 아래의 글은 고정미선생님이 결혼식 과정과 결혼식날 아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결혼식을 해보자는 아이들의 제안이 있는 뒤, (이하 하 : 하마선생님, 튼 : 튼튼이반 어린이)

하 : 그럼 결혼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튼 : 폭죽이요, 자동차요, 비행기요, 드레스하고 구두요, 반지요, 아빠하고 엄마요, 의자요.

하 : 의자? 의자가 왜 필요하지?

튼 : 손님들 앉아야지요!

하 : 아하 그렇구나! 또 뭐가 있을까?

튼 : 화장품이요, 목걸이요, 초요, 계란이요!

하 : 응? 계란이 왜 필요할까?

(피로연을 봤을 리는 없고..이상하다. 긴장을 하고 물었다.)

튼 : 에-이 맛사지 해야지요!

하 : 으-응 그렇구나 (휴-)

튼 : 장판도 있어야 해요(양손을 길게 그리면서)

하 : 장판???... 아하!(아시겠습니까?)

튼 : 넥타이요, 요리사요, 초대장이요, 꽃다발이요, 아가요!

하 : 아가? 애들아 너희들도 아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튼 : !

(아이들은 결혼과 아가를 당연히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신영수는 자기네 집에 식혜가 있다고 며칠을 떠돌고 다녔다. "우리집에 식혜 있어요, 나는 결혼식때 식혜가지고 올게요" (하마선생님 귀에 딱지 땀지셨지요)

튼 : 선생님 그러면 신혼여행도 떠나야해요

하 : 응? 신혼여행?(이것들 봐라 나도 안가봤는데)

그래? 너무 좋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신랑1 : 나는 바닷가로 갈래요

신랑2 : 나는 양촌으로 갈래요



은 자기가 할거라고 며칠을 떠돌고 다녔다.

신식 결혼을하기로 한 신랑 2가 전통혼례를하기로 한 신랑1에게 말을 건넨다.

신랑2 : 야, 너 신혼여행가서 잘 때 저고리를 벗겨야 해. 그리고 잘 땀 옷벗고 자야 돼!

신랑1 : 에-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떡집아들 왈.

떡 : 맞다! 맞아!

하 : 뭐가?

떡 : 내복 가지고 가면 된다!

전통혼례

튼1 : 선생님, 가운데에 음식상 차려야 해요

튼2 : 선생님, 모자도 만들어야 해요

튼3 : 선생님, 신발도 신어야 하는데

튼4 : 선생님, 신부 옆에 붙잡아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튼5 : 선생님, 한복 입고 왜 또 입는거 있잖아요

튼6 : 선생님, 아가는 재롱이 반에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튼7: 장구도 필요한데

.....선생님 살려! 뉘집 아들이유

역시 화장은 예술적인 끼가 있는 정현우가 한다고 손을 번쩍 들고 요리사는 의외의 두 인물이 맡게 되었고,

민혁이는 자기네 집에 감이 있다고 자기는 감을 가지고 오겠다고 또한 며칠을 떠돌고 다녔다.

요리사 중 1인의 한 모친은 술도 있어야 된다면 집에 있는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오셨고...

신랑1의 모친은 모자를 밤새도록 만드신느라고 회사도 지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다음날 아침 아들이 굉장히 서운해했다)

영수는 드디어 엄마까지 동원하여 2개의 15ℓ 음료수병에 가득 식혜를 담아 왔고,

환규는 바나나를 전하는 케익을 민혁이는 짧은 감4개와 다 터진감 2개를 힘차게 들고 들어선 그 날 아침이란!

자기네들끼리 풍선 달고 결혼식 글씨 쓰고 끈 달고... 오메, 이쁜그...

반지도 안 바꾸고 결혼식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서 있는 신부2,

그 옆에 멋있게 무스를 바르고 애간장이 타는 듯 서 있는 신랑2,

천연덕스럽게 엮어주고

(신랑1이 못입어 신부1이 엮어줌)

뽀뽀까지 해대는 신랑1과 신부1!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현장소식 ▶

전례놀이를 자모회에서

김 옥희 (남부, 새터어린이집 교사)

새터어린이집은 지택연 소속 어린이집답게 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도 민간 어린이집과 하나의 차이점이 아닐지?

매월 세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부모회를 기획하는 중에 2월달 부모회는 구정도 있었고 대보름날 전날이니 전통놀이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모든 프로그램하고 간식, 저녁식사는 자모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 임원들로 이루어진 임원회에서 정해서 하기로 하였다.

자리를 뜨셨다.

우선 동그렇게 앉아서 자기 소개부터 했다. 모두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면서 'OO엄마!'라고만 불리다 자기 이름을 대려니 쑥스러워 하셨다.

자기 이름은 무척 소중한 것인데 결혼하면 아이의 엄마로만 불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소개가 좋았고 유일한 청일점인 아삼 아빠의 아내를 부르는 "종희야!" 하는 말이 너무나 신선하고 좋게 들렸다.

처음엔 친목을 다지는 짝짓기 게임, 사회는 친교부장님께서 참석 못하셔서 회장님께서 대신하였다. 아주 능숙하게. 많이 하신셈씨야!

우선 평소에 마음에 들어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가서 양손을 잡고 각자 소개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월요일날 만나는 애인이다. 그 다음 원 안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짝이 바뀌어져 있겠지, 지금 만난 사람이 화요일날 만나는 애인, 이렇



드디어 2월21일 부모회날, 그렇게 광고를 했건만 20분의 자모중 11분의 자모, 자부1분-자모한분과 부부-과 선생님 2분만 참석한 오붓한, 약간은 섭섭한 -많은 준비를 했는데!-자리였다. 그나마 두분은 개인 사정으로 일찍 너무 일찍

게 계속 돌아서 일요일날 만나는 애인까지 다 정해졌다. 완전히 문이 다리네. 부럽다 부러워. 그러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어린 송아지, 산토끼 등을 부르며 왼쪽, 오른쪽으로 헛갈리게 돌다가 사회자가 "월요일 애인!"하고 부르면 그

작을 찾아가는 거였다. 우왕좌왕.

놀이에서 걸린 한 자모는 “내작 잡으려 하니 까 00아빠가 내 작을 잡고 안 놔주잖아!” 하며 억지반, 애원반 선처를 호소하기도, 그래도 규칙은 냉혹한 것, 한바탕 웃음이 끝난 뒤에 책상 위에는 벌칙으로 베푼 새카만 양말 몇 켤레가 걸려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엔 주게임인 윷놀이를 하기 위한 편가르기 게임에 들어갔다. 노래를 부르며 한 원으로 돌다가 짝짓기를 하는 거였는데 간단하고 흔한 게임이었지만 많은 에피소드가 발생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소동 끝에 7명씩 팀이 안 만들어졌다. 아이(초등학생) 1명씩 포함 각 팀에서 말 놓는 사람이 한명씩 나와서 윷은 6명씩 던지기로 했다.

말은 동전으로 100원팀과 10원팀, 규칙도 미리 정했다. 백(back)도 있고 판에 있는 +, -를 지킬 것, 명석 대신 깔아 놓은 대방석에서 윷이 나가면 낙방으로 그 윷 놓은 것은 무효가 되기로 했다. 처음 윷을 던진 다음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상의한 다음 말을 놓고 일단 놓은 말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탄생되었다. 10원팀이 100원팀의 말을 계속 잡으며 100원팀은 하나의 말도 못 나갔는데 10원팀의 말 3개는 먼저 나와서 내 노트에도 ‘일방적인 10원팀의 승리’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대요? 100원팀이 4개를 때냈다. 정말 극적인 역전승!!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엄마들 눈에 불꽃이 튀건 뻔한 뻔자이고

벌칙, 진 팀이 우선 이긴 팀에게 박수를 쳐주고 진 팀은 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붙였다. 그위를 메트 마냥 이긴 팀이 한명씩 그 위를 옆으로 때굴때굴 굴렀다. 마지막, 이긴 팀의 몸이 옆으로 크신 자모께서 자꾸 안하신다고 하시다가 사회자의 “그럼 바뀌어서 합시다”란 말에 하셨는데, 정말 굴러가기 힘들군. 결국은 거의 다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빠지셨다. 너무 웃어서 배꼽이

어디에 갔는지 찾을 정도였다. 모여 앉아 숨을 가다듬으며 이긴 팀은 상품으로 무공해 비누 한 장씩 받았다. 큰건 아니었지만 얼마나 좋아하시던 지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섭하지. 아까 첫번째 게임벌칙으로 양말 한켤레씩 베푼 사람들의 벌칙게임. 사과 반쪽 다 먹고 휘파람 불기. 마음



은 급한데 사과는 왜이리 안 먹히는지. 왜 엄마 혼자 먹냐고 옆의 아이는 떼를 쓰고 휘파람을 불려는데 침만 튀어 그 아래에 앉은 자모는 비를 맞고, 결국 선희선생님이 풀찌가 되어 노래를 들으며 간식으로 사과와 땅콩, 호두를 먹었다. 정말 시간내기 힘든 자모들이라 어렵게 어렵게 참석하시지만 이렇게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모두가 자매, 친한 친구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나도 동화되어 애 몇을 낳은 자모가 된 것 같다.

1시간 2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감정인 우정과 친목을 다지고 집에 간 것 같다. 강사를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웃고 부대끼며 서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부모회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기록을 하느라 게임에 직접 참여를 못해 지탁한 식구들과 새터어린이집 식구들을 잠깐 원망했다는거 혹시 아셨나요? 지금도 귀가 간지러우실걸.....

현장소식 ▶

‘한나라 밭기’ 마이산을 다녀와서

김 경아 (광주, 도담도담 어린이집 교사)

편집지주 : 한나라밭기는 “통일”에 관한 역사, 사회, 문화이론에 대한 공부와 유적지 및 일정 장소 여행을 통해 통일을 염원하고 우리 땅을 사랑하고자 하는 광주지역위원회 교사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이다.

전북진안군 진안읍 마령리에 위치한 마이산은 광주에서 전주를 거쳐 다시 진안행 버스를 타고 진안에서 마이산 행의 버스를 타고 3시간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이산은 조선 태종이 말의 귀와 같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산은 산의 모양만으로도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마이산의 주차장 입구에서 계단을 꼭 따라올라 가면 동쪽편에는 숫마이산, 서쪽편에 암마이산이 있었으나 차라리 산보다는 “마위암”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두개의 바위산이었다. 숫마이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낙석의 위험이 커서 등산은 할 수 없고 동굴이 있다는 표지말에 우리는 눈으로 덮여진 가파른 계단을 기다시피 하여 올라섰다. 그러나 그순간 우리는 너무나 기운이 빠짐을 느꼈다. 나무한 그루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삭막한 돌산의 동굴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작은 틈새였고, 우리를 반기는 살찐 비둘기-한 회원왕, 숫마이산 새들은 다 임신했다 봐 소리는 으스스한 기분까지 느끼게 하였다. 서쪽편에 있는 암마이산은 등산 길이 따로나 있지 않고 사람들이 올라간 흔적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눈 비가 올 경우, 급경사와 나무가 거의 없는 바위산이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의

기양양하게 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운찬 기세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암마이산의 중턱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온 이상 중도 포기란 없는 법!

우리는 군데 군데 나 있는 잔 나무를 부여안고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어렵게 어렵게 한발을 올렸다. 후들거리는 발걸음을 눈 쌓인 바위에 옮길 때마다 “뛰하러 왔다”하는 한숨을 저절로 토해 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올라도 보이는 것은 흰눈뿐인 산을 따라가며, 서로에게 조심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드디어 정상! 모두 “나는 해 냈다”라는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시원한 바람에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혀지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암마이산 정상에서는 숫마이산의 전체 모습과 진안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들의 넉넉하고도 정겨운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회원 중의 한명인 ‘지민이’의 생일 잔치를 했다. 판판한 돌 위에 초코파이 세개를 올려놓고 누가 가져다 놓는지 모르는 촛불(?)두개를 빌려다가 불을 붙이고 “생일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지민이에게 어울릴 선물로 전해주면서 근사한 한해 축하를 해주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식사시간!

반찬이라고는 다 익은 김장김치 한가지 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왜 밥을 이것밖에 안 싸왔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30분 가량을 쉬었다.

다시 마(?)의 산을 내려갈 만반의 준비와 격

려를 하면서 우리는 '출발'을 외쳤다. 내려오는 길은 그사이에 얼어서 더욱 위험해 우리는 서서 내려오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엉덩이를 바닥에 깔고 양손은 눈 쌓인 땅바닥에 대고, 발로 방향키를 잡으면서 썰매 아닌 썰매를 타고 내려왔다. 그러나 그렇게 용감 무쌍했던 우리들도 2/3지점의 쾅쾅 얼어붙어 반질반질 빛나는 급경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발만 동동 구르던 우리에게 백마 탄 기사들(?)이 다가왔다. 전북대학생들이 올라오는 길에 우리를 보고 아이젠을 빌려주고 또 안아서(?)-아, 그 황홀함!-내려 주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었다.

여하튼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밥 맛 없는 산"이라는 말을 연발하면서도 기분 좋게 내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난 은수사의 주지스님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구수한 말 솜씨로 기후 조건으로 맺히는 역고드름을 보여주고, 솟마이산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조선 이태조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백일기도를 드리던 중 이 곳의 기이한 바위 형상을 보고 산제를 드린 곳이라는 은수사에서 보이는 솟마이산의 모습은 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학교시절 배웠던 서양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곳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탐사로 향했다.

탐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이 갑룡 처사가 '부국안민'을 빌며 전국 명산의 돌을 하나씩 옮겨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았다고 하는데 어찌나 잘 쌓았는지 수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돌탑은 그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기에는 그 웅장함이 우리를 놀라게 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가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탐사를 거쳐 남마이산 입구까지의 길은 "진도아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이었다.

우리는 남마이산의 입구에서 인심 좋은 대전 총각을 만나 전주로 가는 자동차까지 공짜로 얻어 타고 전주비빔밥을 대접하겠다는 총각의 간곡한 부탁(피! 거짓말, 돈이 없어서 그랬으면서)을 뒤로하고 비록 마이산은 우리에게 밥맛없는(?) 산이라는 오명을 남긴 마(?)의 산이 되었지만 여러가지 일들은 97년을 새롭게 여는 힘찬 첫 걸음이 되었다.

현장소식 ▶

"땅밧기 소모임"

바다와 철길이 만나는 곳, 정동진을 가다

최 선희 (남부, 새터 어린이집 교사)

편집지주 : 땅밧기 모임은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접할 수 있고 낯선 곳을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라는 열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 교사들의 동료의식을 싹틔우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둘러봄으로 소중한 우리조상의 숨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이다.

땅밧기 모임에서 1월은 어디를 갈까 머리를 맞했는데 회원들은 겨울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바다와 철길이 만나는 곳 정동진으로 가자고 했다. TV'모래시계'에서 촬영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정말 바다와 철길이 만나는 곳이 있을까?

철길이 끝나는 곳에 바닷물이 보이는 상상을 했다.

기차로 가면 8시간이 걸리고 버스로 가면 3시간30분이 걸린다고 해 이번엔 밤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다.

가기 전전날에 몹시 추워지면서 밤에 눈이와 걱정이 됐다. 가다 빙판길에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래서 떠나는 날 사람들에게 잘 잤다 오길 기도해 달라고 했다.

집을 싸며 비로소 여행을 떠난다는 설레임이 왔다.

드디어 우리는 5명이 떠나게 됐다.

차는 출발하고 은홍이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예용이는 책을 보고 나는 은순씨와

이야기하고 연환이는 옆자리의 남자와 신나게 얘기를 주고받는다.

서울을 벗어날 때쯤 차안은 불을 꺼 차창밖으로 보이는 밤풍경이 아름답다. 불빛들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거리의 불빛 차들의 불빛

예전에 가난한 산동네에서 내려다본 밤풍경이 생각난다. 무허가 집에서 살아 집집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아픈 사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다 아름답게 느껴졌었다. 차안은 어두워 다들 잠을 자는지 신나게 떠들던 뒤도 조용하고 옆사람은 자고 조용하다. 밖은 추워 창문은 얇은 얼음이 덮여진다. 스티미가 잘돼 따뜻하고 편안하다. 다들 자는데 운전사아저씨만 2틀전에 온 눈 때문에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실거란 생각이 든다.

운전을 잘못하거나 줄거나 하면 차안에 탄 사람들은 운전사아저씨의 손에 목숨이 달린게 아닌가란 생각에 지금의 나의 하느님은 운전사아저씨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밤이 점차 깊어지면서 생각에 잠긴다. 야간 버스를 타는 묘미가 이런거구나 떠올리지 않고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나는 마치 무릉도원 속을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여러가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차는 어느새 강릉에 도착했다. 2시다.

어느 여관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우리는 6시 10분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모래시계'로 알려져서 인지 작은 기차엔 젊은 이들로 꽉찼다. 젊음은 좋긴 좋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옷들을 두껍게 껴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바다를 보러가니.

20분쯤 가다 내리니 철길 옆이 바로 바다다. 1그루의 휘어진 소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일행중 연환이는 몸이 너무 안좋아 찬바람을 맞으면 안 되겠기에 다음에 오는 기차를 타고 묵었던 여관에 가서 쉬기로 하고 4명만 10분쯤 걸어 바닷가에 닿았다. 바다는 어둠에 잠겨 있고 해가 떠오르는 쪽 하늘이 새벽바다다. 사람들의 모습이 검은 실루엣으로 보인다. 겨울 새벽바다에 처음 와보는 우리는 감탄을 하며 어둠속에서 사진을 찍었다. 30분을 기다려도 해는 안 떠올랐다. 안 나오나 보다고 나올거라고 하며 기다리니 해가 떠오르는 쪽 하늘이 점점 붉어지며 어느새 어둠이 걷히어 주위가 밝아졌다. 아침이 된 것처럼 그때서야 해가 떠오른다.

아! 해는 어둠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

위가 환히 밝아진 다음에 떠오른다는 것을 알았다. 바람이 너무 차 정말 추었지만 우리는 둘둘이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우습게도 펄름이 다 떨어져 해뜨는 장면은 찍지도 못했다.

바다의 푸른 빛은 너무 선명했고 파도도 많이 쳤다.

해는 떠오르는 것보다 캄캄한 새벽에 어둠으로 서서 기다리는 마음이 더 좋았다. 우리는 해돋이를 봤으니까 언문을 녹이려고 바닷가에서 걸어나와 주위에 음식점을 찾았으나 아직 문명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아 주변에는 음식점이 눈에 안 띄었다. 역으로 가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연환이를 찾으니 만났다. 바다에 못갔기 때문에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한방을 찍어주고 기차에 올랐다. 아침을 먹고 근처의 절이나 경포대나 오죽헌이나 둘러보라고 얘기도 나왔으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일요일이라 올라가는 차도 많이 막히니 서울에 일찍 올라가 영화 한편 보자고 해 아쉽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10시20분 차로 떠나 2시에 서울에 닿았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터미널에서 가까운 강남에 있는 극장에 가 '샤인'을 봤다.

보고 싶었던 영화 샤인인데 난 1/3쯤 보고 잠이 들어 버려 불이 들어오고야 일어났더니 무슨 내용인지 몰라 허망했다. 일행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그들은 가고 난 다시 극장에 들어와 진지하게 한번 더 영화를 보고 집으로 향했다. **작업인**



탁아소 별곡

다우리 어린이집 이야기

이야기 하나

낮잠에서 깨어나 TV를 명에 나란히 앉아 땡땡 TV를 보다가 낮잠을 깨어난 병규가 공작을 먹고 소꿉친구에게 공작을 먹여 준다.

병규 : 친구야 친구야 아이들 : 조-용 (아무런 반응이 없자)

병규 : (애원하듯) 친구야, 친구야 연접이 저편에서 앉았던 공작이 일어나서 병규를 깨워보자

병규 : 친구야. 병규 똥 - 싸, 병규 똥 - 싸

이야기 둘

간식시간이다. 장난감을 장려하고 탁아소 병규가 공작을 먹고 땡땡 노래를 부른다.

이모 : 자! 이제 간식먹자.

아이들 : 와!! 간식이다.

이모 : 애들아 오늘은 맛있는 사과예요

서진 : 아! 사과다, 신난다.

지민 : 아니야, 사과 아니구 간식이야.

서진 : 아니야, 사과야.

지민 : 아니야. (역시 저편서) 간식이야.

이모 : 저편에서 간식 내용보다 간식 자체가 중요한데, 매일 이런 식으로 연접이 계속되고 있음

이야기 셋

동화책을 읽는 시간. 다들 도깨비를 읽다가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연접이 도깨비를 읽을 때 아이들이 그러는 대목이다. 말을 듣고 저나가며 그 장면을 읽음 제다보던 보승이 갑자기 연접이 옆으로 달려간다.

보승 : (서로 그쪽 도깨비를 읽다가) 이모, 지민이가 여기 있네!

이모 : 응? 얼굴이 달긴 했지만 지민이가 아니고 도깨비야

보승 : 아니야 지민이야. 연접이 도깨비를 읽을 때 본 것과 똑같이 연접이 옆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모 : 지민아! (도깨비를 가리키며) 누구야?

지민 : 이모, 지민이야.

이모 : (말을 읽음)

다우리어린이집에서 '도깨비를 불러 버린 오라일리'는 저편이 그림책으로 통연합니다.

이야기 넷

점심시간을 연 후 큰방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저편이 저편에게 큰소리를 질러며 뛰어 내려와 울고 있다.

이모 : 지용아, 왜 지민이에게 소리지르고 때렸니?

지용 :

이모 : 이모는 지용이가 왜 지민이를 다치게 했는지 궁금해.

보라 : 궁금해

지용 : 내가 뛰어내리는데 지민이가 안비켰어.

이모 : 그래서 소리질렀어?

보라 : 소리질렀어?

지용 :

이모 : 그럴때 지민이에게 비켜달라고 말을 하고 비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야.

보라 : 기다려야 하는거야.

지용 :

이모 : 이모 말 이해하겠어?

보라 : 이해하겠어?

보라는 자신이 연접이 도깨비를 읽을 때 저편이 그림책이었다. **작업인**

좋은 그림책 소개

나무의 노래

김 서란 (전주, 정다운어린이집 교사, 이야기나라 소모임)

임정진 글 / 유진희 그림 / 두산동아출판사 / 정가 4,800원



아주 작은 이파리 몇 장을 가진 보잘것없는 모양의 아기 은행나무는 달님을 보며 꿈을 꾸다.

“세상에서 제일 키 큰 나무가 될 테야”
뽕죽뽕죽 연두색 대잎을 내밀며 아기 죽순도
꿈을 꾸다.

“해님보다 더 아름답게 되어야지”
평화로운 마을 풍경위로 두그루의 나무는 매
일 매일 꿈을 먹고 커져간다.

해마다 많은 죽순을 내밀며 가족을 거느리게
된 대나무는 피리가 되어 처녀와 총각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어 사랑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은행나
무는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 방울 방울 맺혀 온
행 알로 되어 사람들이 그 열매로 약을 쓰게 되
었다.

처녀는 곱게 말린 은행잎을, 총각은 대를 깎
아 엮어 만든 바구니를 주며 사랑을 나누었다.

드디어 총각과 처녀가 신랑과 각시로 마당에
서던 날 처녀가 태어났을 때심은 오동나무를 배
어 만든 장롱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었다.

신랑, 각시의 집은 소나무로 튼튼하게 지어있
고 서로는 뜰에 있는 앵두나무와 산수유두그루
를 바라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오동나
무를 심어주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각시의
말에 대나무는 꿈을 이루었고 황금빛 은행잎이
골목길을 가득 메울 때 신랑은 은행 알을 거두

며 “넌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큰 나무야”라는
말에 은행나무도 흐뭇해한다.

할아버지께서 꽃상여를 타고 마을을 나가시던
날 나무들도 슬퍼하며 이야기가 결말 된다.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 책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끼게 해준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럽
고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나무들의 꿈꾸
는 모습이 의인화되어 보여지는 아름다운 책이
다.

교사들이 어렸을 적 동산에서 소나무에 그네
를 매어 타던 기억을 떠올리게도 하고 동네에서
작사랑하던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뛰어 놀 만한 마당
도, 쉽게 접하는 소나무동산에서의 추억거리가
없어 흥미로워 하는 소개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
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아이들보다 어른들
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책으로, 먼저
선생님이 충분히 소화한 후 아이들과 한번보다
는 여러번 보여주어 생소한 이름의 나무를 하나
씩 알아 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5·6세 아이들이

나무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책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

주 연옥 (마산, 튼튼이 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순간순간 자신을 격려하며 살아왔다. 1년 6개월전 나는 수많은 갈등과 토론 속에서 어린이집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 아이들 속에 묻혀 세월의 흐름도 뒤로 한 채 사랑을 나누고 있다.

긴 세월동안 분명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얻은 교훈은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라고 확신한다. 때로는 알미운 짓(?)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겐 모두가 천사들이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이 순수함을 다른 아이들을 통해 본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얻어지는 일에 대한 매력, 이것은 나를 천사로 만들기도 하고 보통사람들의 눈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담을 통해서, 다른 시설의 방문을 통해서 나는 아이를 키울 줄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 보육시설 선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는 것, 부모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등등 아이 키우는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나의 생활로 들어가 보자, 새벽 5시 50분, 시계벨 소리와 함께 하루는 시작된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나의 정신도 튼튼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원기를 찾는다. (집에만 가면 쉴지도 못

하고 잠들어 버리는 내가 일요일도 신 새벽에 자동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직업병인가?)

7시 30분이 지나면서 한명 두명 문을 두드린다. 오늘 아침은 성준이가 1등으로 왔다. "성준(5세)아 안녕? 어제 할머니집에 가서 재준(2세)이랑 재미있게 놀았나?" "응--- 재준이가요 풍선을 보고 막 울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선생님하면서 엄마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뒤엉켜 지낸다.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민이는 "엄마 어디가는데?" "뭐하러 가는데?" 답변도 하기전에 질문을 던진다. "응, 엄마 시장에 가서 고구마도 하고 만두도 사고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올게" 아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엄마' 소리에 나는 흐뭇함을 느낀다. '그래 키워준 엄마도 엄마니까 나는 너희들의 엄마다'라고 강조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줄까? 짜증을 잘 내는 아이는 무엇이 문제일까?... 선생님들의 고민은 끝이 없다. 우리 교사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이를 키우는 일이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일 나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삶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천사들 속에 있는 나도 천사가 아닐까?

별선생님 어디갔어요?

이 연순 (인천, 밝음 어린이집 원장)

십년전인가 보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한 곳이 탁아소라는 곳이었다. 도시 변두리에 있는 탁아소는 농번기 탁아라는 년2회 보조인건비가 100,000원씩 지원되고 있었다. 도시빈민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농번기 탁아라니 외아하기만 했던 탁아소 생활을 1년으로 마감하고 그후로 1년뒤에 그곳 문을 닫았다.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일할 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햇살에서 일하면서 그 탁아소가 많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택연은 있었고 교사와 자모가 주체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꾸리는 걸보며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한동안 날 따라다녔다.

햇살에 입문하게 되면서 생소하기 만한 탁아운동과 거침없이 나아가는 선배교사가 얼마나 당당하게 보이던지, 지택연 수련회에서 본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던지.(지금도 영동포 성문밖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하던 조용란선생님은 정말 멋있다고 기억된다.)

지금은 탁아의 주체로 나섰지만 너무나 조심스럽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바로 설 수 있게 해준 곳이 햇살이었다. 그만큼 햇살은 많은 이야기와 이웃을 갖게 했다. 멀리서 그 느

낌만으로도 알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작은 일에도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주는 엄마들, 별선생님 어디갔냐고 가끔 기억해주는 아이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장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 스스로 가기보다 누군가에게 떠밀리길 바랐는데 위치이동이 수평이 아닌 수직이동이기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조금은 원망스러웠지만 그만큼 믿고 함께 하겠다는 그 뜻을 보며 위안을 삼는다. 몇년전부터 교사발령제를 부르짖었던 만큼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과감히 떨치고 일어났건만 햇살에서 모든게 갖춰졌던 그래서 조금은 안일했던 시절이 그렇기만 하다.

막상 옮기고 나니 이름도 골목에서 밝음으로 바뀌고 아이들도 엄마들도 모두 새롭다. 석달이 되어가건만 아직도 적응하느라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살아가는데 햇살이 이웃이 되었다면 지택연,인탁위는 나를 탁아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게 한 지주이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명숙선생님과 새롭게 일어서는 전 햇살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진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바로 서자는 결의를 다시 새기며 힘내자고 외친다. 아울러 인탁위, 지택연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늘 따뜻한 마음으로 접수한다.

겨울 그 다음은 봄입니다

박 인혜 (봉천동 애기방 교사)

이즈음 애기방 위쪽 동네는 밀짚한 집보다 철거로 인해 반파된 집과 형체가 거의 사라진, 철거 잔해물과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버린 흉물스러운 거리에 갇혀있다.

소복이 쌓인 눈으로도 도저히 감추어지지 않는 비참함.

마치 인체의 내장이 터져나온 것만 같아서 도저히 한참을 바라 볼 수가 없다.

2년전 나의 모습이 되살아난다.

내가 뿌린 시간, 정열, 내 신념.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시간들.

내가 인간인 것이, 나의 주변이 인간으로 둘러 쌓여 있는 것이 너무나 불행으로 여겨졌던 시간들,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한가닥 실오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들어섰던 애기방.

"시간이 약이다. 한 1-2년 지나면 무더지고 담담해진다." 어느 지인의 말에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 속으로 생각했었다. 허나 먼저 경험한 인생의 선배들의 말은 전리인가 보다.

보육교사 양성 교육원을 다니면서 새롭게 열리는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뿌듯함으로 다가오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눈빛 속에 날카롭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던 내가 조금씩 조금씩 무더지고 담담해짐을 요사이 느낀다.

예초엔 몇 달만 일하겠하던 애기방 생활이 2월말로 꼭 2년이 된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까지 왔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리바꿈의 시간이 다가왔다.

항상 헤어짐의 시간이 오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과 걱정도 많아진다.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들의 끝을 걱정과 후회로 써버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후회되어지고 아쉽고 앞으로의 일도 주체님께 걱정도 많이 된다.

더군다나 중요한 시기에 나만 쏙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함도 많다.

재미있는 이모가 되지 못하고 소리치고 혼내주는 이모가 된 것 같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밥한 숟가락 더 먹어도 눈치보게 만드는 상주인이어서 자활들에게 미안하고, 힘들고 고물스러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줄 모르는 무던 사람이어서 은진이한테 더욱 미안하다.

그래도 한가닥 욕심은 동한다.

결코 내자신은 그렇지 못했지만 애기방 사람들에게 조금은 보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 사람들에게는 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듣지마는 이 정도나마의 모습으로 될 수 있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 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애기방 사람들 모두모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애기방 문을 열다가 잠시 눈길이 위쪽으로 향해 진다.

비록 지금은 흉물스러운 모습이지만 이전에는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던 동네였고 앞으로는 아픔과 분노가 배여 있진 하겠지만 번듯한 동네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 그리 슬프지만은 않다. **적백민**



백연애선생님
2월 22일,
8월 11일
계정잔액 24,500원
매달 3월 31일
봉급지급
식당에서 1인당 100원
예정입금 4,400원

육아일기

유빈 아빠의 아이 돌보기

나 은미 (고양시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둥기둥기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귀염둥이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꽃보다도 예쁜 아가 보석보다 귀한 아가
미늘보다 높은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둥기둥기 우리 아가 ♪♪♪

아빠가 잠무정하는 유빈이를 재우며 불러주는 자장가입니다. 엄마젖을 찾으며 울어대는 유빈이를 안고 어쩔줄 몰라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그럴듯하게 자장가도 불러주며 잠을 재운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집에도 들어서자마자 유빈이가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부터 찾는답니다. 출장과 늦은 귀가로 며칠 유빈이를 못 보다 오랜만에 부녀상봉을 했을 때 유빈이가 낯선 사람처럼 대하자 섭섭한 마음에 맥이 빠지나 봅니다.

어느 일요일 엄마가 외출해서 하루종일 부녀가 놀았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퇴근해서 문에 들어서자 유빈이는 아빠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안아달라고 합니다. 아빠는 활짝 웃으며 아이 키운 보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유빈이가 언니들과 낮에 놀다가 손톱에 핏줄이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빠는 누가 그랬냐며 흥분하고는 다음날 아침 유빈이를 할편 아이에게 심각한 얼굴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자랑하던 아빠도 유빈이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아이를 잘 낳고 기르는 일은 엄마와 아빠가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유빈이를 가졌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유빈이를 기르는 일은 엄마의 몫입니다. 갓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손빨래하고...

아빠가 하는 일은 생활비 벌여오고, 퇴근해서 돌

아와 유빈이가 잠들 때까지 놀아주고, 엄마가 외출할 때 잠깐씩 돌봐주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데 불과합니다.

물론 유빈이 아빠는 다른 아빠들에 비하면 육아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유빈이가 방긋방긋 웃을 땐 제법 잘 데리고 놀다가도 졸려하거나 보채면 "왜 왜 이래?"하며 은근히 엄마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놀이방에 왔던 아이들이 돌아가고나서 청소하라 빨래하라 바쁜 엄마 곁에서 유빈이가 칭얼거릴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유빈아 이리와"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 못지 않게 아빠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바깥 일, 엄마는 집안 일」이라는 동식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빠가 가정 일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는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아빠들이 바깥 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가족 시대에서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떠올린다면 결코 육아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고개 숙인 남자'도 그런거지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땐 직장일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못하다가 막상 늦고 지쳐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가까이 하려 하면 사춘기가 된 아이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빠들이 아이키우기에 임할때에는 아이들이 엄마 못지 않게 아빠의 풍족한 사랑을 원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아내를 도와주는 데 그친다면 부모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포기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쪽 사랑만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적백민**

소식과 소식

■ 신구지역대표자합숙

2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송실대사회봉사관에서 신구지역대표자합숙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지대의합숙에서는 매년 정기총회를 마친 뒤 1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도 전국에서 올라온 지역장과 집행부, 본회부설인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이 '97년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첫날엔 '한국보육교사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 구성 및 역할', 조직·교육사업, 행사별사업, 한국보육정보연구소사업, 예산안 검토를 하였으며 (가칭)한국보육교사회 준비위는 '97 신입지대가 반기로 하여 8월에 있을 보육교사회 창립총회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둘째날은 '97보육사업지침 분석 검토를 하였고 '97사업 계획보고 및 승인과 '97예산안 보고 및 승인이 있었다.

'97년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신입지역장들의 높은 의지가 돋보였고 사안 하나하나 깊게 논의하여 모두가 숙지한 끝에 통과시키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 신현회사무국장 사임

3년동안 본회의 든든한 사무국장으로 일해온 신현회사생님이 사무국일을 사임하고 시그니텍스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거평어린이집 교사로 가시게 되었다. 평소 현장교사로의 귀의(?)를 희망하셨는데 사무국사정이 여의치 않아 출산휴가 2개월을 빼고는 만3년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온 모범적인 선배이기도 하다. 신입사무국장으로서는 최순옥교육부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임하시게 되었다.

■ 우리의 빛, 변미양씨 결혼축하연



지탁연 가족들 가슴 깊이 살아있는 우리의 빛 변미양(전 해송아기동지 교사)씨가 2월 23일 대학로 동송아트센터에서 결혼축하연을 가졌다. 부군인 김광민씨는 한-일 보육교류를 통해 우리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다.

작년말 일본에서 동료들이 마련해준 감동적인 결혼축하연을 가진 데 이어 변미양 선생님과의 깊은 친분을 나누었던 동료, 어른들을 모시고 다시 한국에서 축하연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날 결혼축하연은 보통의 결혼식과 다르게, 하

객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변미양씨를 평소 애지중지하고 지내는 분들의 덕담을 들었다.

몇년전 어린이집에서 당한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해졌지만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강하게 살아가는 변미양 선생님과,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위하여 민족학교 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광민씨의 앞길에 하객 모두는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두분은 2월 말 일본 보금자리로 떠날 예정이고 변미양씨는 메달 소식을 통해 오오사카에서 보내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시민운동지원기금 96년도 지원사업 보고회

본회는 1996년도 하반기 시민운동지원기금의 후원을 받아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전국보육교사연수를 치른 바 있다. 이번에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는 96년도 지원사업보고회를 열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려내었다. 보고를 통해 각 단체의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단체 간에 사업과 방식을 교류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요, 지원기금 이사들에게 시민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언론, 노동, 교육, 여성, 환경, 장애 및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각 시민단체의 폭넓은 사업이 보다 나은 미래 시민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여연 이사회

지난 2월 19일(수) 오후 1시부터 여연 제1차 이사회가 있었다.

97년 들어 처음인 이번 이사회의 주된 안건은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여성운동상 시상 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고, 「96 여성권의 디딤돌 5, 걸림돌 5」를 선정했다. 디딤돌로는 변영주 감독, 추미애 의원, 박문진 병원노련 위원장, 빗장을 여는 사람들, 성폭력 당하려는 여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시민이 선정되었고, 걸림돌로는 여성차등 정년을 인정한 김형진 대법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폭행을 야기한 LG 그룹, 신양중학교 교장 황수인,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영화 제작자, 추미애 의원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 신한국당 남성 의원이 선정되었다.

다른 안건으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논의, 경제자립 사업에 대한 논의,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대한 논의, 대선시기 여성정책과제 선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칭)한국보육교사회 준비위원회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

지역소식

<인천보육교사회>

◆ 인천지역위는 지난 1월 정기총회를 거쳐 인천보육교사회로 조직체계를 전환하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으로는 회장:문유미(예슬어린이집), 사무국장:고정미(전햇살어린이집), 조직부장:김명숙(나눔어린이집), 시설부장:최화영(우리동네어린이집), 정책팀장:문유미선생님이다.

◆ 임시총회개최

지난번 정기총회때 인준받지 못했던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인준 받았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의 토론과 안건처리에 들어갔다. 우리교육 정리팀은 기존 회원과 더불어 각집에서 1인씩의 교사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탁연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집별로 내기로 결정하였다. 인천지부 사무국에서 중앙의 '현장기자'역할과 여름연수팀에 합류하는 것을 인준받았으며,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보고, 일본연수 보고, 회원 결혼식 보고(변미양선생님 포함), 풍물패 '메나리' 초급발표회 보고등등이 있었다.

<전북, 아이사랑 교사회>

전북지역 아이사랑교사회는 2월 24일 정기총회를 가졌다.

작년말 활동이 부진했던 것을 일소하고 힘차게 97년을 시작하자는 결의를 모았고, 새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으로는 회장:김미숙(정다운어린이집), 총무:강선희(금암어린이집), 재정:김서란(정다운어린이집)선생님이 일하게 되었고, 전북지역은 전주,이리등으로 거리가 먼 관계로 분과(소모임)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설차원에서 한분과를 맡아 집중담당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분과장으로는 이아기나라 : 유주연(롯데어린이집), 한소리 : 최수진(하늘땅어린이집), 놀이 : 최용경(금암어린이집)선생님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광주지역위원회>

광주지역위원회는 회원대상으로 3월7일 '97보육사업지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부지역위원회>

남부교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3월 7일 '97보육사업지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인천보육교사회에 경사 또 경사났습니다.

노처녀 나눔의 이상미선생님이 3월22일 결혼하고요, 4월 6일에는 최금자 전예술선생님이 결혼하고요, 또 4월19일에는 서로사랑의 신현경선생님이 결혼하셨습니다. 인천에 결혼 안한 선생님들 약올라서 어떻게 살거예요? 정말 정말 축하하고요 결혼후에도 더 열심히 활동할거죠?

♣ 출산을 축하합니다.

봉천 씨씩이어린이집 주혜민선생님이 난산끝에 뛰어난 정신력으로 자연분만에 성공하여 옥동자를 출산하셨습니다. 변미양씨 결혼축하연에서 뵈었는데 무척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부러움을 갖게하였답니다.

♣ 보내주셨습니다.

◆ 안산시 보육정보센터(박금희 보육지도원)에서 작년 12월에 발간한 '유아들의 놀이지도' 자료집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아들의 놀이지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동기는 "아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낮시간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정적인 놀이와 동적인 놀이,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의 적절한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그중 공간의 한계와 사고의 위험 때문에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실외놀이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 자료집을 준비하였다"라고 한다.

◆ 보리출판사에서 신간'월채어'를 타는 친구(줄프리트 펙 썸, 김라함 옮김, 송진현그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는 어린이가 보통 어린이라면 한번 시간을 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한 시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또 귀를 막고 한나절만 지내 보세요. 손이나 발을 묶고 한동안 있어 보거나,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안에 오랫동안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왜 장애인에게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윤구병선생님의 추천의 말씀이다.

◆ 봉천동예기방의 소식지 '봉천동 예기방', 인천 햇살어린이집 소식지 '햇살의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 부산보육정보센터, 공동육아연구원,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에서 회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감사드리고요.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자료를 보고 싶은 회원은 본회사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회 97년 2월 활동일지

2/3 집행위원회의 10 집행위원회의 15-16 신규지역대표자 합숙 17 집행위원회의
19 여연이사회 21 3·8 여성대회준비를 위한 사무국장 연석회의 24 집행위원회의

보육계 동향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10주년/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 →→→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일시 : 1997년 3월9일(일)오후2시

장소 :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 홀

사회 : 오숙희(여성학자, 방송인), 이상덕(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

출연자 : 정은숙(성악가, 세종대 음대교수), 꽃다지(노래패), 안치환(가수), 안혜경(가수), 전북여성 농민노래단

주최 : (사)한국여성단체연합(278-9535)

주관 : 여연 문화위원회

후원 : 기독교방송,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여성신문, 동아TV

협찬 : 남양알로에

여성의 삶과 글쓰기

「여성의 삶과 글쓰기」는 ·강의 ·대화 ·글쓰기습작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3월 10일 여성에게 말하기와 글쓰기란?

3월 17일 여성의 글쓰기와 리얼리즘

3월 24일 여성문학과 여성해방문학의 글쓰기

3월 31일 이야기와 이념과 미학

4월 7일 영화보기와 이야기하기(강의가 아님)

4월 14일 좋은 문장 쓰기 ①

4월 21일 좋은 문장 쓰기 ②

시간 : 매주 월요일 늦은 7시-9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수강료 : 4만원

등록 및 문의 : 232-0383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자 양성과정

계몽사에서 운영하는 유아놀이교육 프로그램인 집덴디에서는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자 양성과정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문대이상 유아교육 및 체육교육학과 재학생, 졸업생과 유아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체운동 발달, 리듬과 창작, 신체구조와 안전지도, 심리정서발달과 지각인지발달 기구활동, 신체활동의 실제, 부모교육등을 실시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자 3급 자격증을 지급한다.

교육기간 3월8일(토)-5월31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50분. 연락처 : 559-5183

삼성어린이박물관 전시관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비교전시하여 보다 넓은 안목과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양국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직접가보지 않고도 그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있다.

편집부에서

■ 봄이 느껴집니다.

어느새 동장군도 기세가 꺾이고 봄내음쉬인 꽃향기가 느껴지네요.
독자분들 한달 동안 잘지내셨죠?
활기찬 봄날을 맞으며 활동도 생활도 생기있게 하시길...

■ 세상읽기 집필진이 내정되었습니다.

세상읽기 고정난을 본회 위양자부회장이 매월 수고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자료회비 인상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가 올해부터 인상됨을 알려드림과 함께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의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득이하게 인상되었으니 재구독시 인상분을 송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구독 30,000원, 6개월구독 16,000원입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안산보육정보센터, 박경자, 이영숙, 김현미, 김이남, 원혜경
6개월구독: 조용란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
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거
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지역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
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
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
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
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
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놀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산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놀푸른대리점은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록 KC등으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서비스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5,775원		
	의료상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험자 특약요율의 65% 적용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상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물 및 일가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50% 적용)					화재보험 일반공전 최종 적용요율의 65%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공전 기본요율) × (1±할인) 할증요율(±6%)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10원	9,810원	15,275원	24,235원	
		2등지	7,820원	12,865원	20,315원	31,195원	
		3등지	9,530원	15,215원	24,735원	38,130원	
		4등지	11,305원	18,015원	29,240원	44,650원	

(놀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